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2015~16년 비교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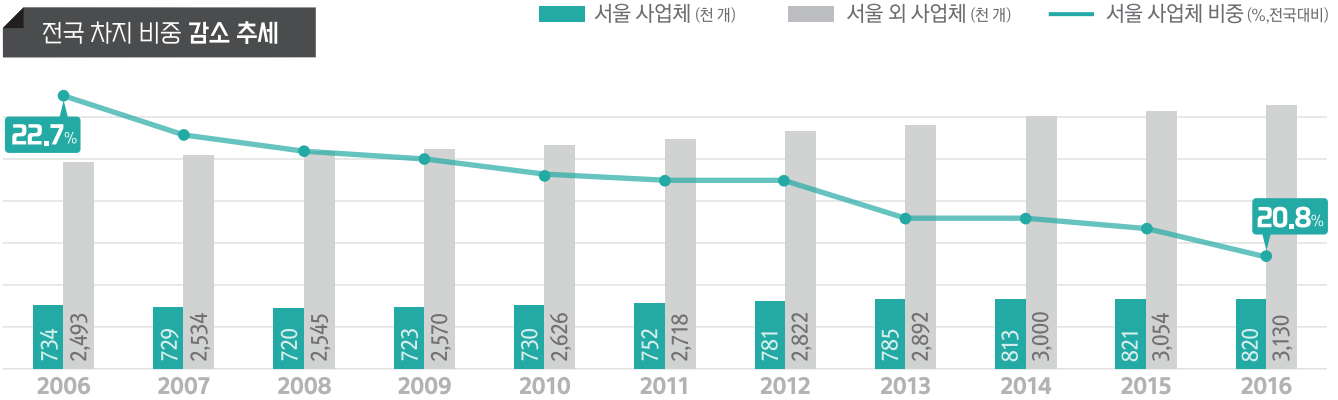
박정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

2018. 12

서울의 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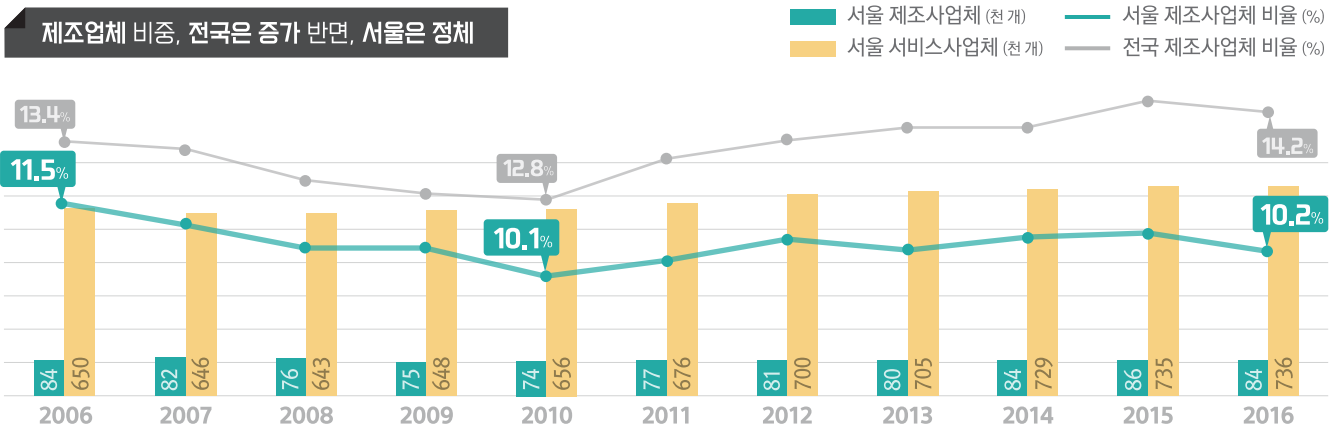
서울의 사업체 동향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KOSIS



서울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체 동향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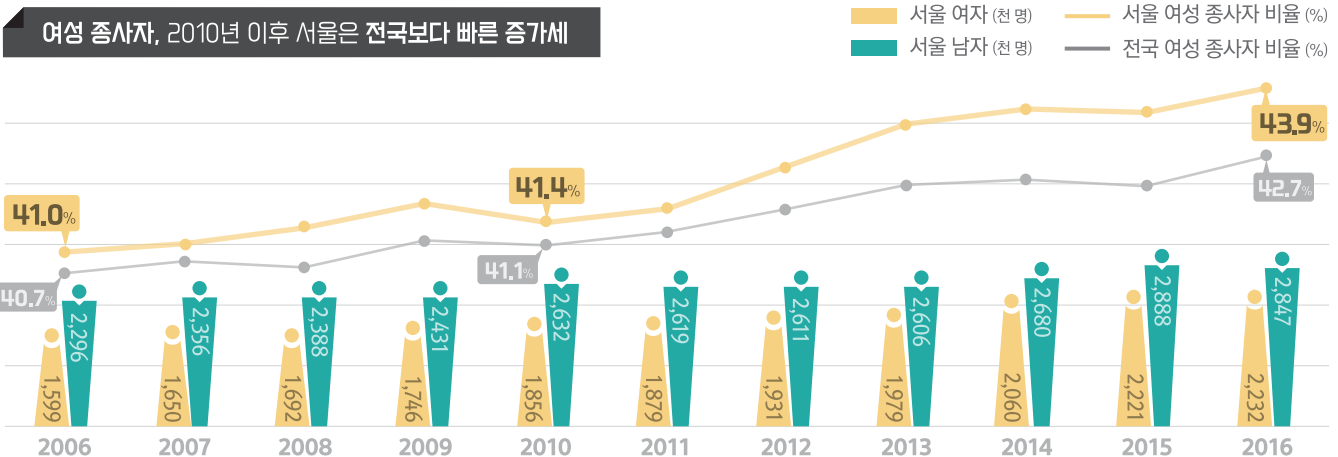


제조업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건설업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서울의 남녀 종사자 동향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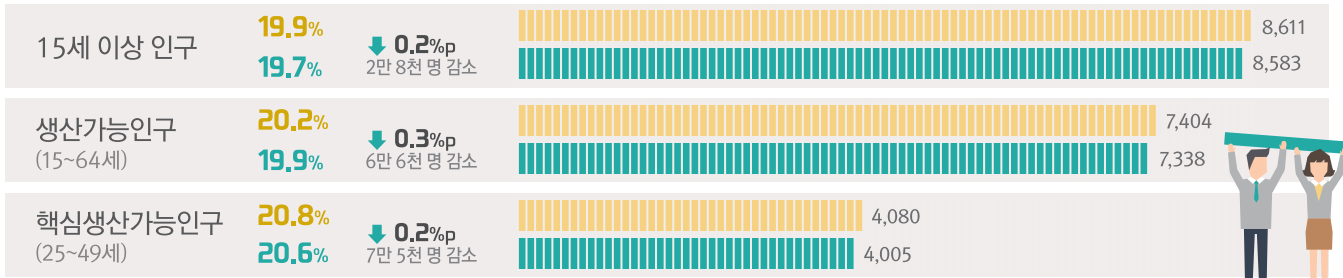
서울의 고용동향

서울의 생산인구 동향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KOSIS / 통계청 [상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MD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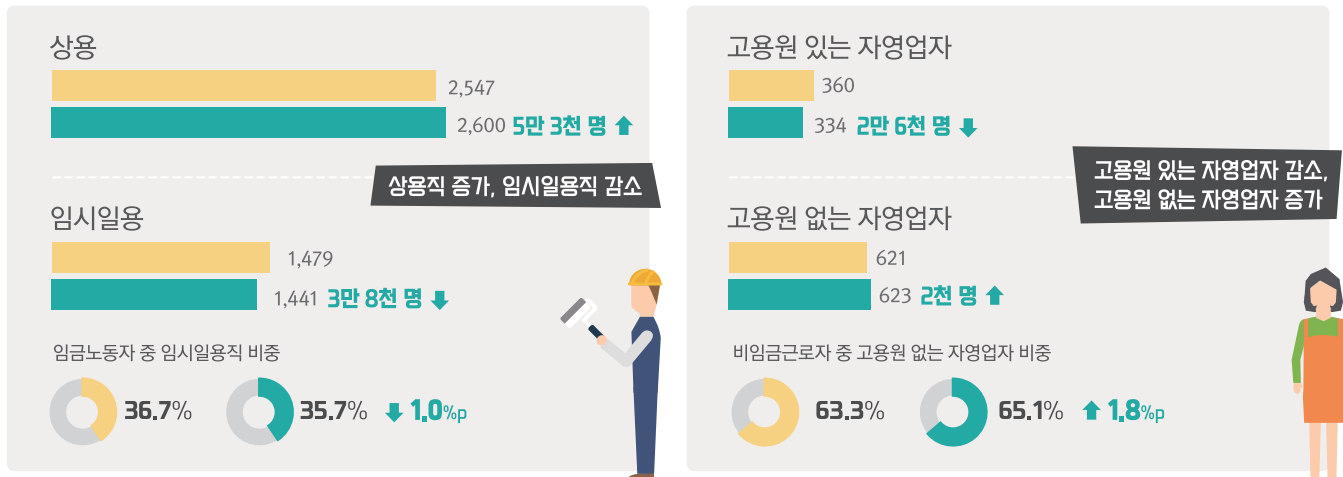
서울의 생산인구, 전국 차지 비중 감소

전국 중 서울의 생산인구



서울의 종사자 지위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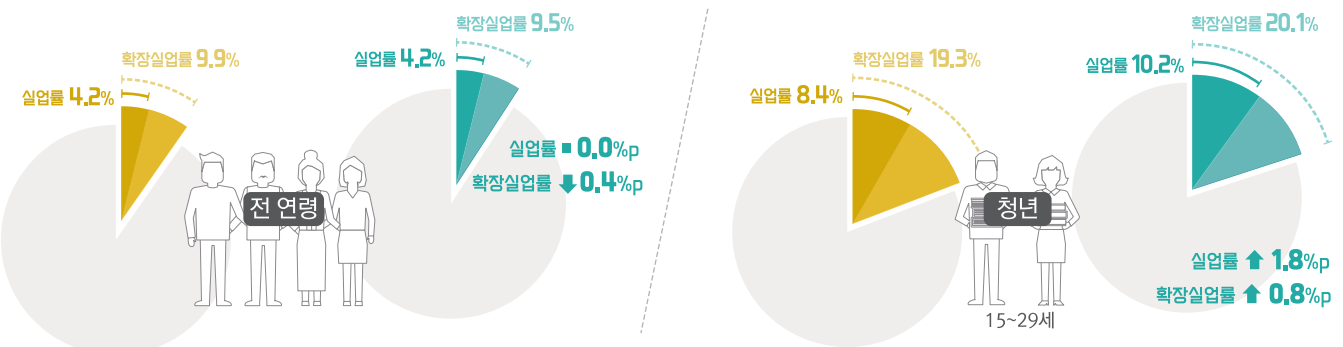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KOSIS / 통계청 [상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MD 가공



서울의 실업률 동향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KOSIS / 통계청 [상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MD 가공

전 연령 실업률 개선 반면, 청년 실업률 악화



확장 실업자 확장실업자는 통계청에서 활용되는 고용보조지표3인, 고용보조지표3은 실업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며, 흔히 체감실업률로 이해되기도 함. 단, 서울의 확장실업자 수는 제한된 가정을 둔 추정치임을 유의, 자세한 내용은 분석 방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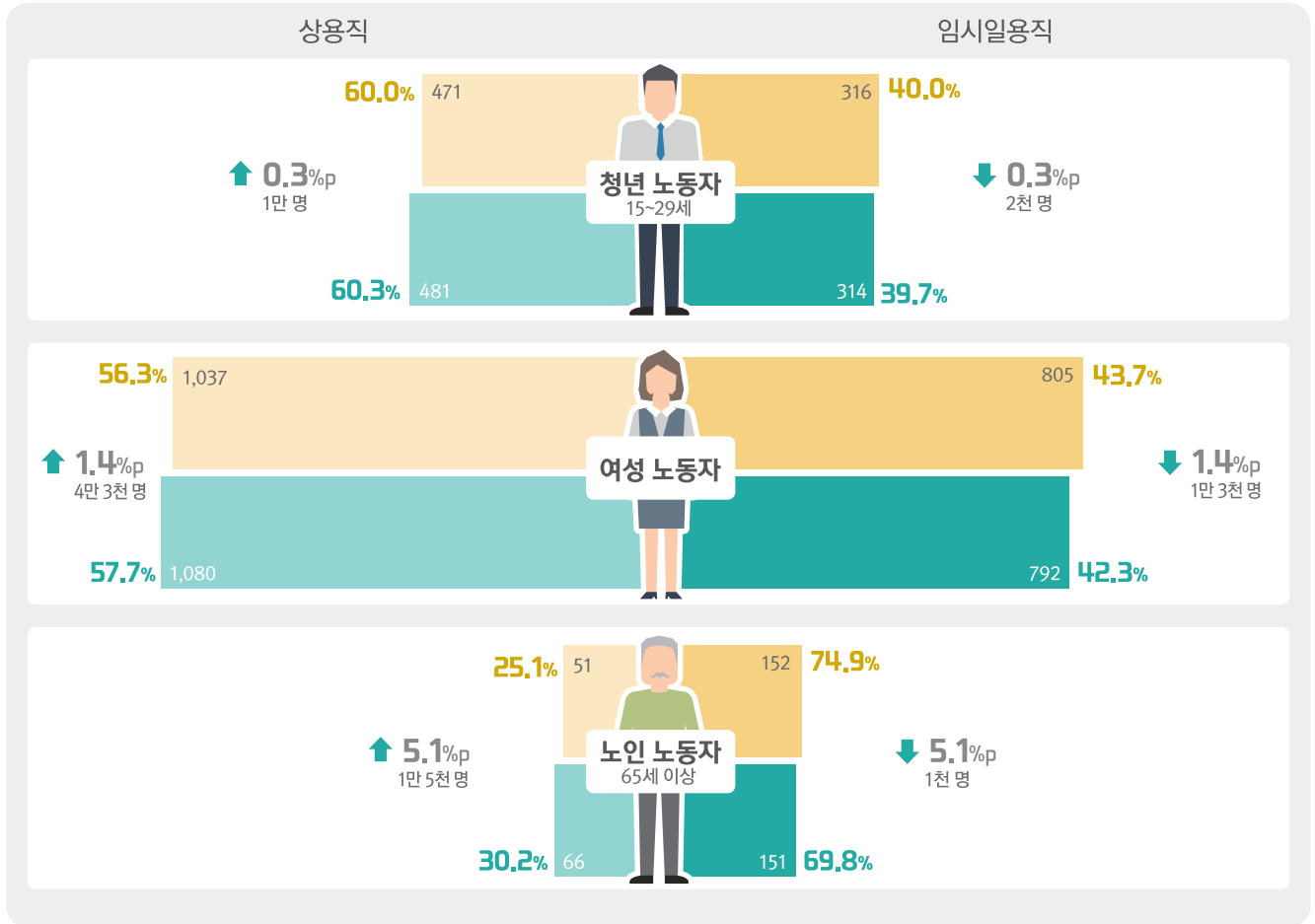
서울의 취약계층 노동자 동향

서울의 청년, 여성, 노인의 고용안정성 동향

자료 : 통계청 [상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MD 가공

상용직 ↑ 반면, 임시일용직 ↓

2015 (천명) 2016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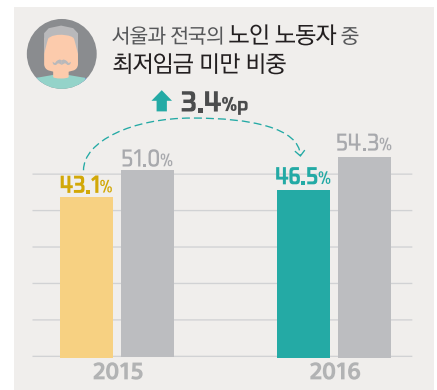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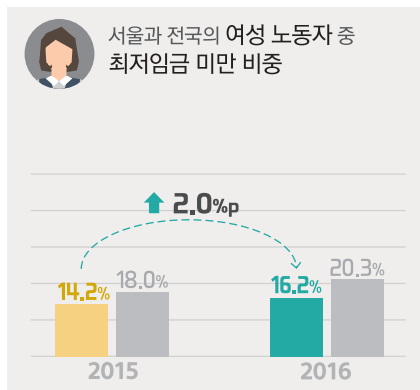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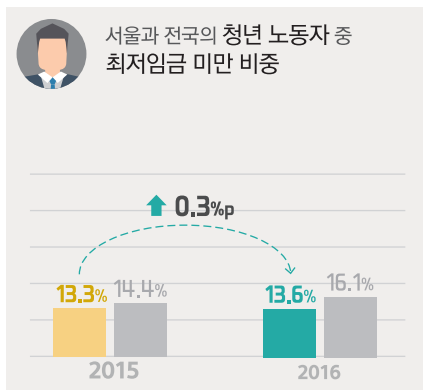


서울의 청년, 여성, 노인 노동자의 임금열악성 동향

자료 : 통계청 [상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MD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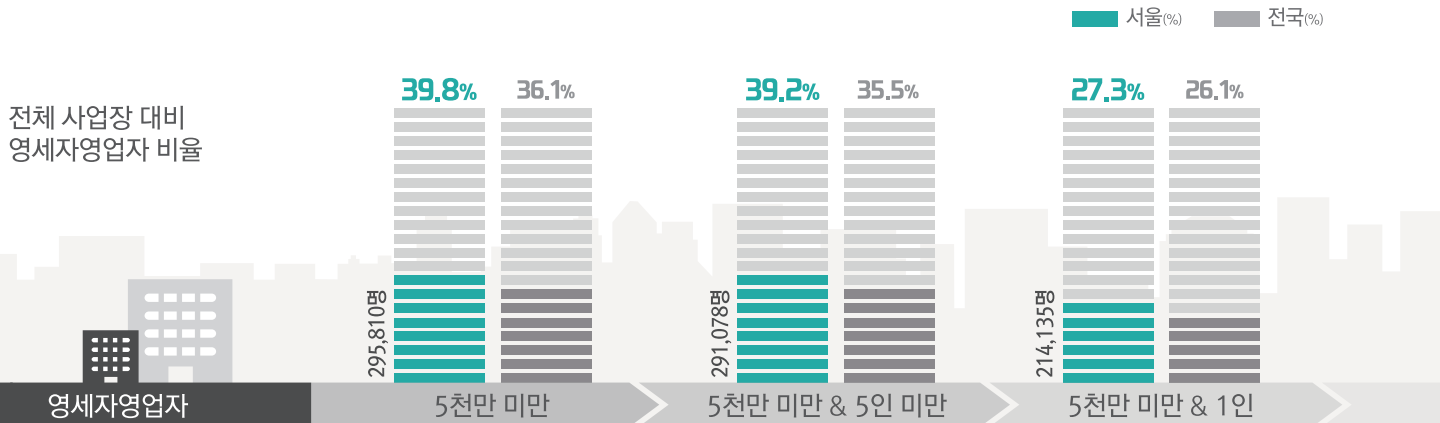
최저임금 미달자, 여성과 노인에서 크게 ↑

2015 (%) 2016 (%) 전국 (%)



서울의 영세자영업자 규모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6년 MD 가공



영세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과 종사자 규모를 고려하여 3가지로 정의됨. 기본적으로 연매출이 5,000만 원 미만인 사업체를 영세사업체로 정의하고, 영세자영업자는 이 사업체의 소유주를 뜻함. 5,000만 원은 간이과세대상자가 연매출 4,800만원인 점을 참고함

서울의 산업별 영세자영업자 규모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6년 MD 가공

영세자영업자 (연매출 5천원 만 미만)

산업	규모 (명)	비율 (%)
운수업	81,896명	86.3%
협회 및 단체, 개인 서비스업	44,792명	63.7%
교육서비스업	15,221명	44.7%
부동산업	16,865명	41.2%
예술스포츠서비스업	8,799명	40.6%
숙박음식점업	34,795명	27.2%
사업지원서비스업	3,592명	26.9%
제조업	15,389명	25.2%
도소매	55,008명	23.8%
전문서비스업	7,578명	19.4%
출판, 영상업	4,395명	18.8%
건설업	4,035명	18.1%
금융보험업	1,530명	14.0%
전기가스수도사업	11명	8.0%
보건복지서비스업	1,863명	6.8%
하수폐기처리업	24명	5.5%
공공행정업	6명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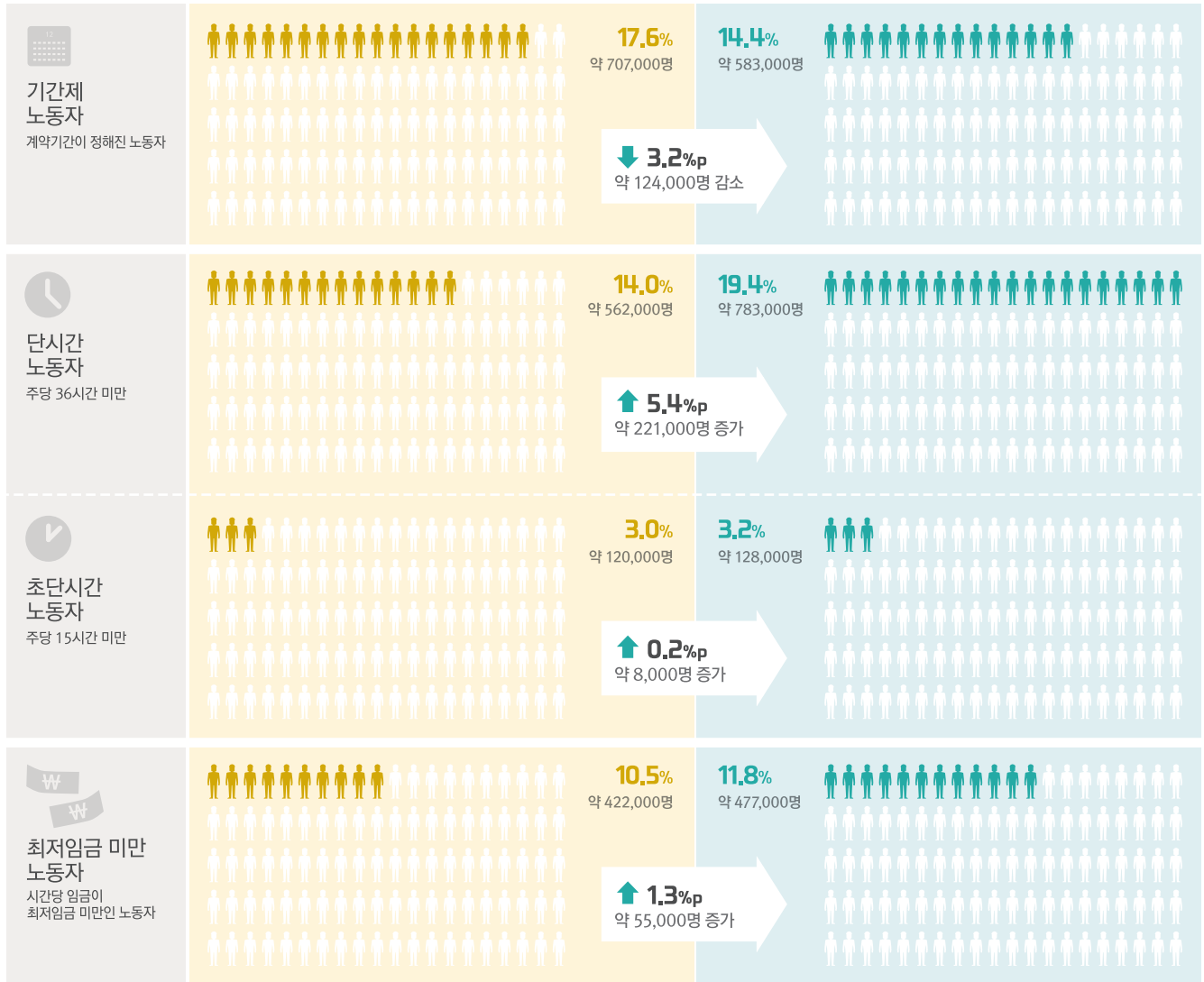
서울의 취약계층노동자 동향

서울의 취약근로형태 노동자 규모

자료 : 통계청 [상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MD 가공

2015 (%) 2016 (%)

기간제 노동자 ↓ 시간제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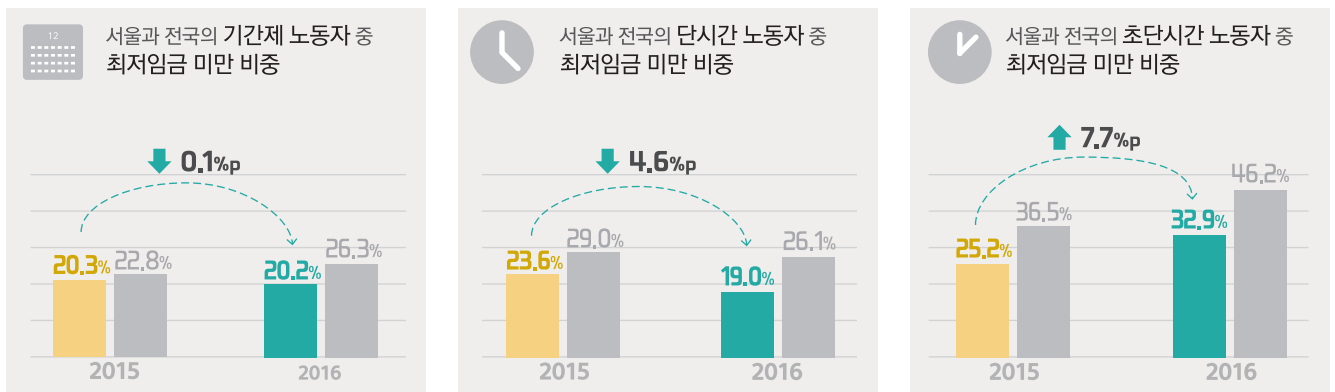
* 2016년 단시간 노동자 수치는 상반기 조사기간(2016.04.11.-15)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으로 과대표집 되었기 때문에, 결과해석에 주의해야함

서울의 취약근로형태 노동자의 임금열악성 동향

자료 : 통계청 [상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MD 가공

2015 (%) 2016 (%) 전국 (%)

최저임금 미달자, 기간제 노동자 ↓ 반면, 시간제 노동자 ↑



서울의 취약계층노동자 동향

서울의 최저임금 미달 규모

자료 : 통계청 [상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년도 MD 가공

미달 규모와 시간당 미달액 모두 ↑

2015 (%) 20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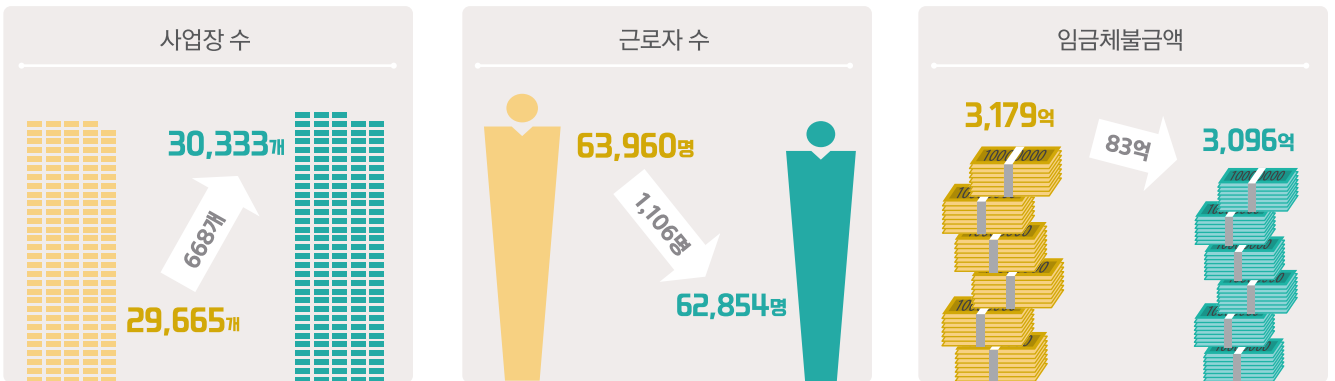


서울의 임금체불 동향

자료 : 서울시 고용노동청 정보공개청구자료

임금체불 위반 사업장 ↑ 체불 근로자와 임금체불액 ↓

2015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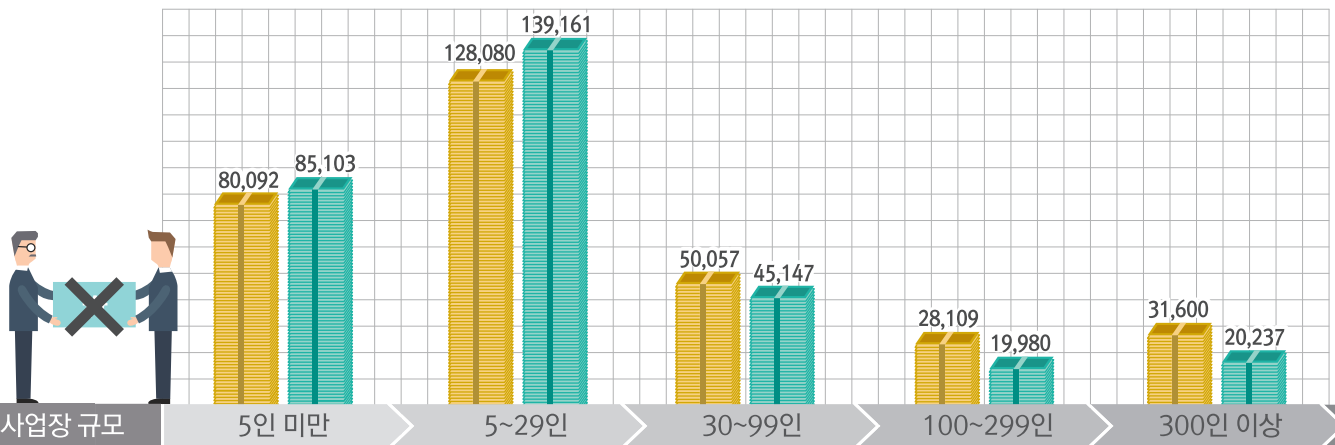


서울의 종사자 규모별 임금체불액

자료 : 서울시 고용노동청 정보공개청구자료

30인 이상에선 감소했지만, 30인 미만에선 오히려 증가

2015 임금체불액 (백만 원) 2016 임금체불액 (백만 원)



목 차

I. 서울의 노동 통계란	1
1. 목적과 구성	1
2. 분석 방법	1
II. 서울의 산업 동향	3
1. 사업체 동향	4
2. 종사자 동향	6
III. 서울의 고용 동향	11
1. 생산인구 동향	12
2. 취업자 동향	13
3. 실업자 동향	16
IV. 서울의 취약계층 노동자 동향	19
1. 인적속성 구분	21
1) 청년 노동자	21
2) 여성 노동자	23
3) 노인 노동자	26
2. 노동시장 불안정성 구분	29
1) 기간제 노동자	29
2) 시간제(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	31
3)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34
4) 영세자영업자	37
3. 임금체불 동향	39

표 목차

〈표-1〉 보고서 구성과 분석 자료	2
〈표-2〉 생산인구	12
〈표-3〉 경제활동인구	13
〈표-4〉 취업자의 인구사회적 변동	14
〈표-5〉 임금/비임금 근로자	16
〈표-6〉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16
〈표-7〉 실업자와 확장실업자	17
〈표-8〉 확장실업자 구성	18
〈표-9〉 청년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변동	21
〈표-10〉 청년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23
〈표-11〉 청년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23
〈표-12〉 여성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변동	24
〈표-13〉 여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25
〈표-14〉 여성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26
〈표-15〉 노인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변동	26
〈표-16〉 노인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28
〈표-17〉 노인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28
〈표-18〉 기간제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변동	30
〈표-19〉 기간제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31
〈표-20〉 시간제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변동	32
〈표-21〉 시간제(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34
〈표-22〉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변동	35
〈표-23〉 최저임금 미달액 규모	36

〈표-24〉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업종	36
〈표-25〉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직종	37
〈표-26〉 임금체불 변동	39
〈표-27〉 종사자규모별 임금체불액	40
〈표-28〉 산업별 임금체불액	40

그림 목차

[그림-1] 사업체 추이	4
[그림-2]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체 추이	5
[그림-3]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추이	5
[그림-4] 매출액별 사업체 비율 (개수)	6
[그림-5] 종사자 추이	7
[그림-6] 성별 종사자 추이	7
[그림-7]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추이	8
[그림-8]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추이	9
[그림-9] 매출액별 종사자 비율 (인원)	10
[그림-10] 전국 중 서울의 생산인구 비중	12
[그림-11] 경제활동참가율	13
[그림-12]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	15
[그림-13] 종사상 지위별 비율	15
[그림-14] 실업률과 확장실업률	17
[그림-15] 청년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	22
[그림-16] 청년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23
[그림-17] 여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	25

[그림-18] 여성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25
[그림-19] 노인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	27
[그림-20] 노인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28
[그림-21] 기간제 노동자 비율	29
[그림-22] 기간제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31
[그림-23] 시간제(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 비율	32
[그림-24] 시간제(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34
[그림-25]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	35
[그림-26] 영세자영업자 비율 (인원)	37
[그림-27] 산업별 영세자영업자 비율	38
[그림-28] 영세사업체 종사자 비율 (인원)	39

I. 서울의 노동 통계란

1. 목적과 구성

□ 서울의 취약계층 노동자 동향 이해하여, 서울시 노동정책의 근거와 방향 탐색에 기여

□ 2015~16년의 서울의 산업 동향, 고용 동향, 취약계층 노동자 동향 분석

- 산업 및 고용은 노동을 둘러싼 경제 지표로서, 서울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동향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임.
- 취약계층 노동자는 인적속성에 따른 구분과 노동시장 내 불안정성에 따른 구분으로 나뉘어 분석됨. 인적속성 구분은 청년, 여성, 노인으로, 노동시장 불안정성 구분은 기간제 노동자, 시간제(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로 세분됨. 이에 더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발생가능성이 높은 임금체불 동향이 함께 검토됨. 취약계층 노동자의 구성은 학술적 배경과 정치적 이슈가 함께 고려되었음.
- 영세자영업자가 노동자에 해당하진 않지만, 본 보고서는 이들을 취약계층으로 보는 것이 정치적·사회적·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봄. 이들의 근로실태는 2005년 기준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에 20%가 속해 있음¹⁾. 또한, 최근 정치적·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임.
- 기본적으로 2015년과 2016년 간 서울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되나, 전국 맥락에서 볼 수 있도록 전국 수치도 함께 표기됨.
- 산업 동향은 추세적 이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06~2016년의 10년 간 추세가 분석됨²⁾.

2. 분석 방법

□ 분석 데이터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행정데이터 활용

1) 최경수, 박창균, 이경애, 강유미(2006)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 본 보고서의 주요 초점은 2016년임. 2년 전인 2016년의 데이터가 사용되는 이유는 보고서의 시점 일치성을 위해서임.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전국사업체조사가 현 시점에 2년 전 자료가 발표되기 때문임. 이에 따라, 2019년 동향 분석 보고서는 2017년 자료가 사용되어 2분기에 발간될 예정임.

- 지역별 고용조사는 본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로서, 상·하반기의 데이터가 평균 사용됨. 상·하반기를 평균 사용하는 것은 연도 간 비교라는 보고서의 목적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계절 요인을 줄여주는 효과도 가지기 때문임.
- 지역별 고용조사는 서울의 고용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주되게 사용됨.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일반적으로 고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통계청의 KOSIS가 제공하는 수준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활용됨. 두 자료는 가중치를 통해 정합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며, 이 수치로 추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용 사용에 중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분석 기법은 시·도 가중치가 반영된 빈도 및 교차분석이 사용됨.

〈표-1〉 보고서 구성과 분석 자료

대목차	중목차		연도	자료		
서울의 산업 동향	사업체 동향		2006~16년	전국사업체조사 KOSIS		
	종사자 동향					
서울의 고용 동향	생산인구 동향		2015~16년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다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에서 행정구역별로 발표하는 항목은 KOSIS 수치가 사용됨.		
	취업자 동향					
	실업자 동향					
서울의 취약계층 노동자 동향	인적속성 구분	청년 노동자	2015~16년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여성 노동자				
		노인 노동자				
	노동시장 불안정성 구분	기간제노동자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시간제 노동자			단시간	
					초단시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5천만원	
					5천만원&5인 미만	
					5천만원&1인 미만	
임금체불 동향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서울시 고용노동청 정보공개청구자료				

Ⅱ. 서울의 산업 동향

[사업체 동향]

- 전국 중 서울 소재 사업체 비중 감소 추세. 2006년 22.7%→2016년 20.8%로 10년 간 1.9%p ↓
- 서울 사업체 중 제조업체 비율 10% 수준 지속
- 5인 미만 사업체 비율 감소 추세. 2010년 82.3%→2016년 79.2%로 3.1%p ↓
- 연매출 5억 이상 사업체 비율 20.7%, 10억 이상 사업체 비율 12.5%

[종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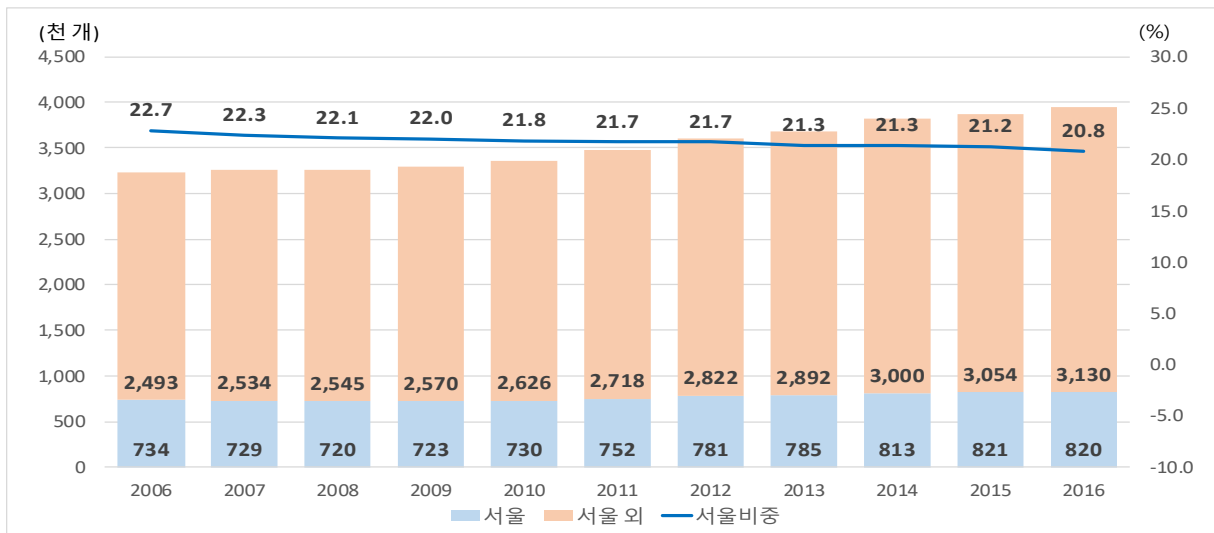
- 전국 중 서울의 종사자 비중 감소 추세. 2006년 25.2%→2016년 23.9%로 10년 간 1.3%p ↓
- 서울 종사자 중 여성 종사자 비율 증가 추세. 2010년 41.4%→2016년 43.9%로 2.5%p ↑
- 제조업 종사자 비율 감소 추세. 2010년 15.0%→2016년 13.0%로 2.0%p ↓
-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 감소 추세. 2006년 28.1%→2016년 23.1%로 5.0%p ↓
- 연매출 50억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 45.2%, 300억 이상 종사자 비율 24.4%

1. 사업체 동향

□ 전국 중 서울 소재 사업체 감소 추세. 22.7%→20.8%로 10년 간 1.9%p ↓

- 전국 사업체 중 서울 소재 사업체의 비중 2006년 22.7%에서 2016년 20.8%로 1.9%p 하락
- 다만,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의 사업체 수가 감소하진 않음.
- 서울의 사업체 비중 감소 현상은 서울 외 지역의 사업체 수가 서울 지역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임.

[그림-1] 사업체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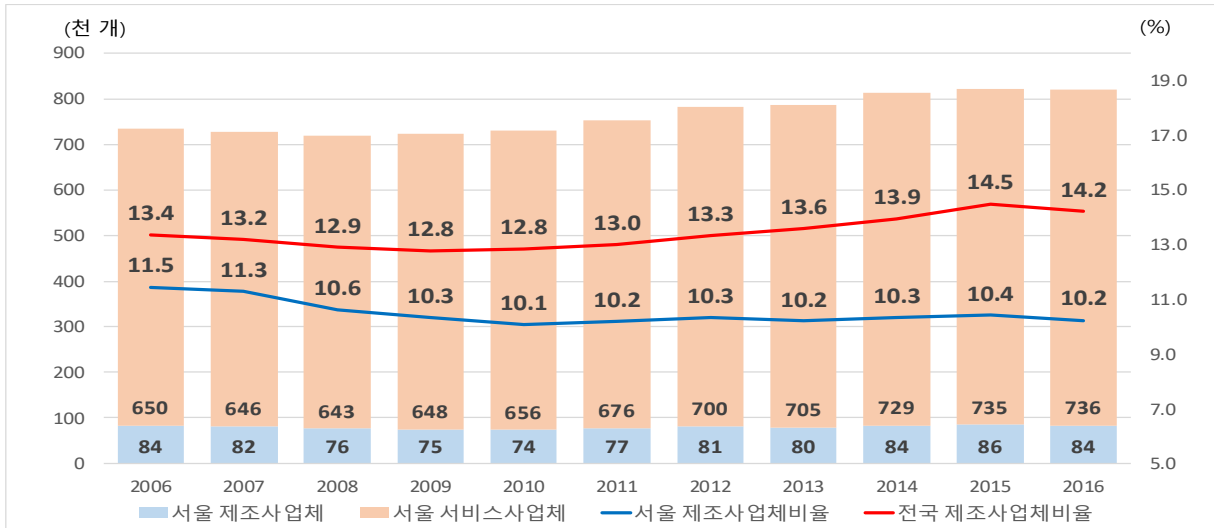
□ 서울 사업체 중 제조업체 비율 10% 수준 지속³⁾

- 2010년 이후, 서울의 제조업 비율이 10% 수준 지속 (전국 12.8%→14.2%로 상승 추세)
- 서울은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가 유사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서울 외 지역은 서비스 업체보다 제조업체가 더 빠르게 증가

3) 제조업은 2차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서 제조업(C),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D),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E), 건설업(F)으로 구성

서비스업은 3차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서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으로 구성

[그림-2]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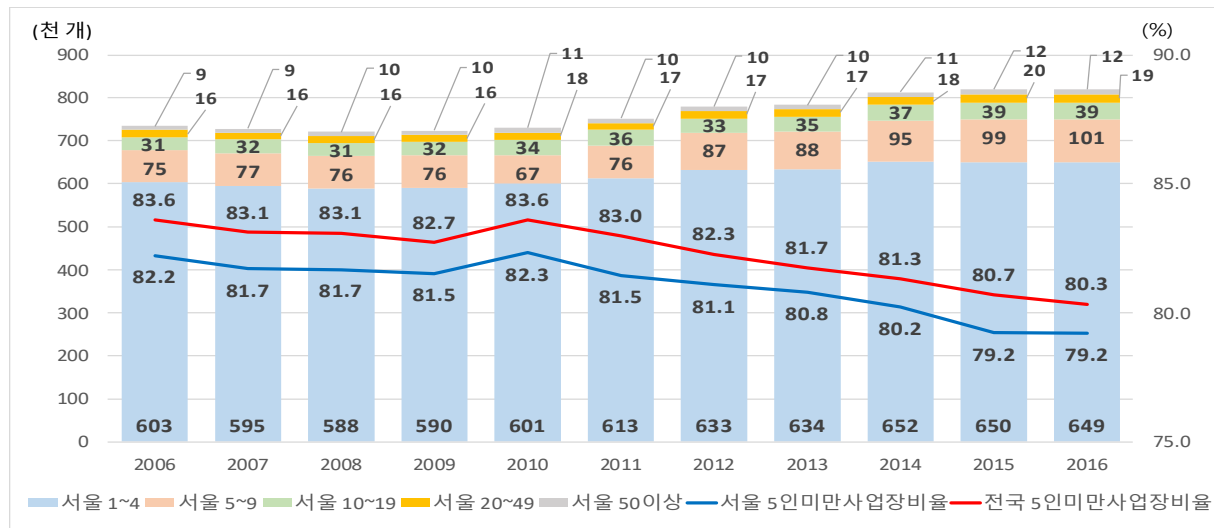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KOSIS

□ 5인 미만 사업체 비율 감소 추세. 82.3%→79.2%로 3.1%p ↓

- 전체 사업체 중 5인 미만인 사업체 2010년 82.3%에서 79.2%로 3.1%p 하락 (전국 80.3%)
- 다만, 5인 미만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서울의 5인 미만 사업체 비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5~9인 사업체의 증가세가 빠르기 때문임. 5~9인 사업체는 2006년 6만 7천 개(9.2%)에서 10만 1천 개(12.3%)로 증가

[그림-3]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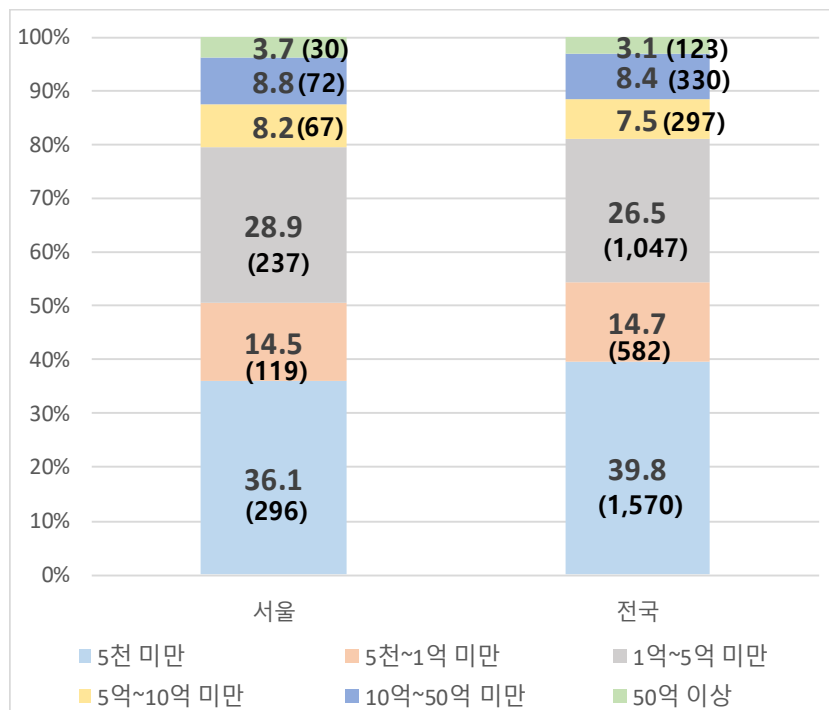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KOSIS

□ 연매출 5억 이상 사업체 비율 20.7%, 10억 이상 사업체 비율 12.5%

- 연매출 5억 이상 사업체 20.7%(16만 9천 개) (전국 19.0%)

-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체 12.5%(10만 2천 개) (전국 11.5%)
- 서울은 상대적으로 고매출 사업체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특징 보여
- 연매출을 기준으로, 서울의 사업체는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체가 36.1%(29만 6천 개)로 가장 많았고, 1억~5억 미만 28.9%(23만 7천 개), 5천~1억 미만 14.5%(11만 9천 개), 10~50억 미만 8.8%(7만 2천 개), 5억~10억 미만 8.2%(6만 7천 개), 50억 이상 3.7%(3만 개) 순이었음⁴⁾.

[그림-4] 매출액별 사업체 비율 (개수) (% , 천 개)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6년 원자료 활용

2. 종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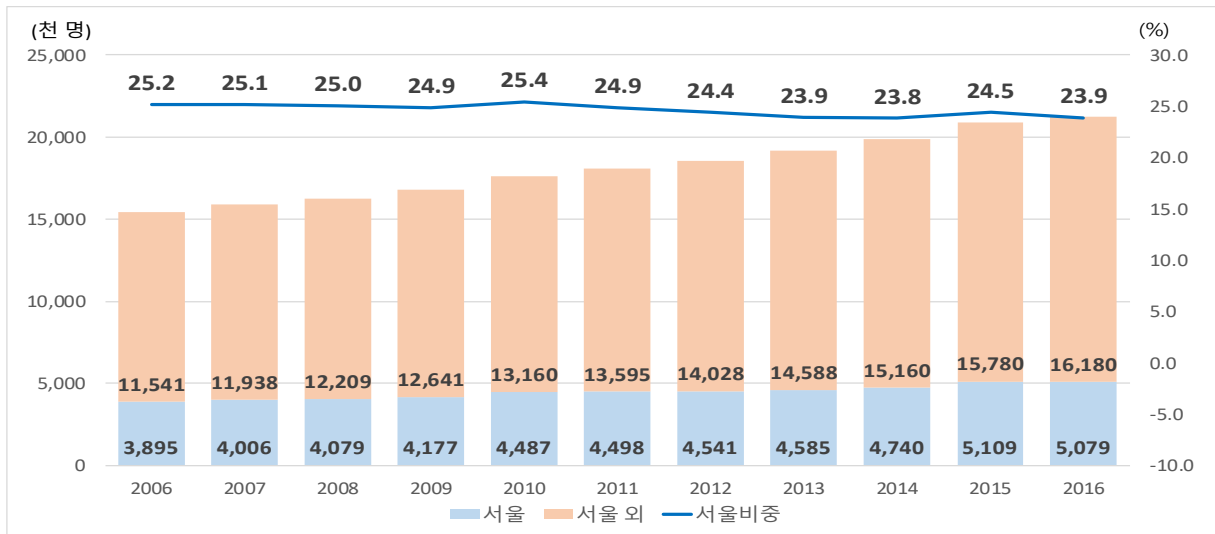
□ 전국 중 서울의 종사자 감소 추세. 2006년 25.2%→2016년 23.9%로 1.3%p ↓

- 전국 종사자 중 거주지역이 서울인 종사자의 비중이 감소 추세. 2006년 25.2%에서 10년이 지난 2016년 23.9%로 1.3%p 하락
- 다만,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인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서울의 종사자 비중이 하락하는 것은 서울 외 지역의 종사자 수가 서울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임. 이는 위에서 살펴 본 전국 중 서울 사업체 비중 감소가 종사자 비중

4) 매출액별 비교는 자료의 한계로, 2016년 한해만을 횡단 분석함.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그림-5] 종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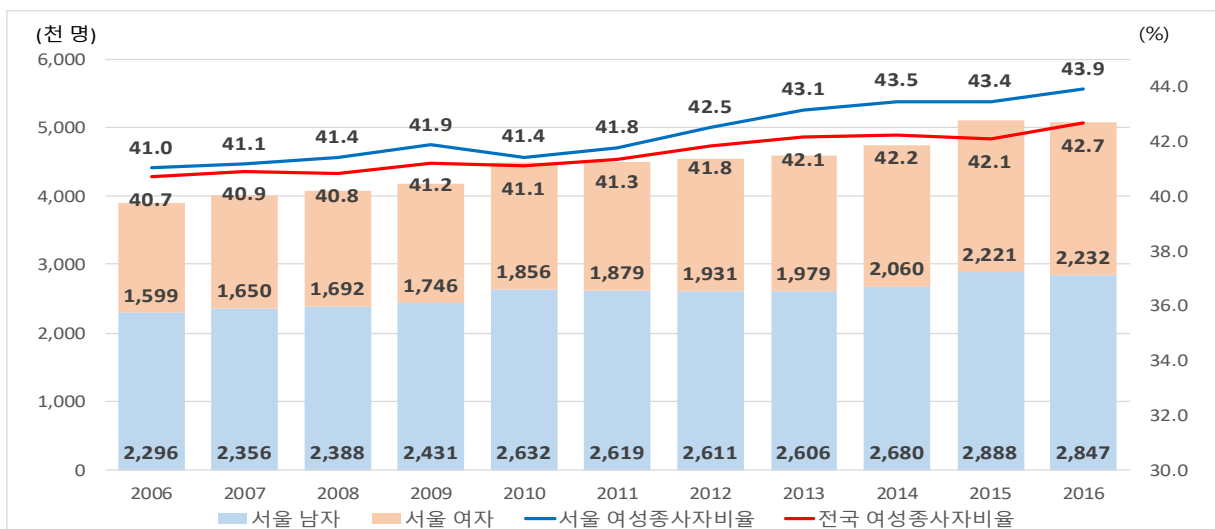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KOSIS

□ 여성 종사자 비율 증가 추세. 2010년 41.4%→2016년 43.9%로 2.5%p ↑

- 서울의 여성 종사자의 비율은 2010년 이후 빠른 증가세. 2010년 41.4%에서 2016년 43.9%로 2.5%p 상승 (전국 42.7%)
- 남성 종사자 인원이 감소한 것은 아님. 여성 종사자 인원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 종사자 증가 추세 빠른 것은 산업 구조와 연관된 것으로 보임.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서비스업체가 전국보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임.

[그림-6] 성별 종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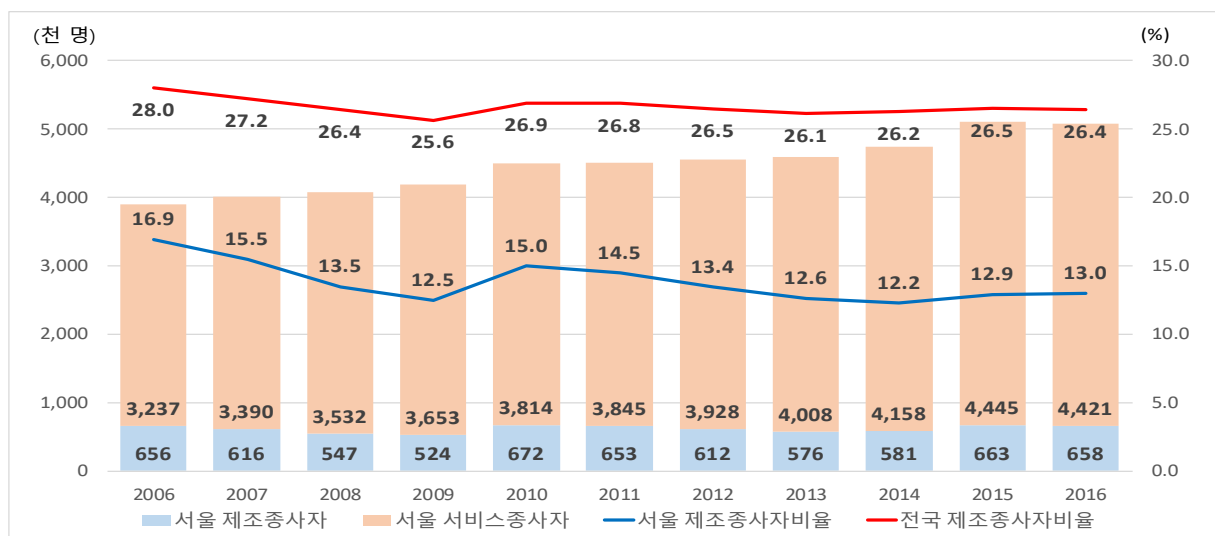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KOSIS

□ 제조업 종사자 비율 감소 추세. 2010년 15.0%→2016년 13.0%로 2.0%p ↓

- 서울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2010년 15.0%에서 2016년 13.0%로 2.0%p 하락 (전국 26.5% 수준 유지)
- 한편,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그 격차가 2배 수준 (2016년 기준 전국 26.4%, 서울 13.0%)
- 서울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은 제조업 종사자 수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그림-7]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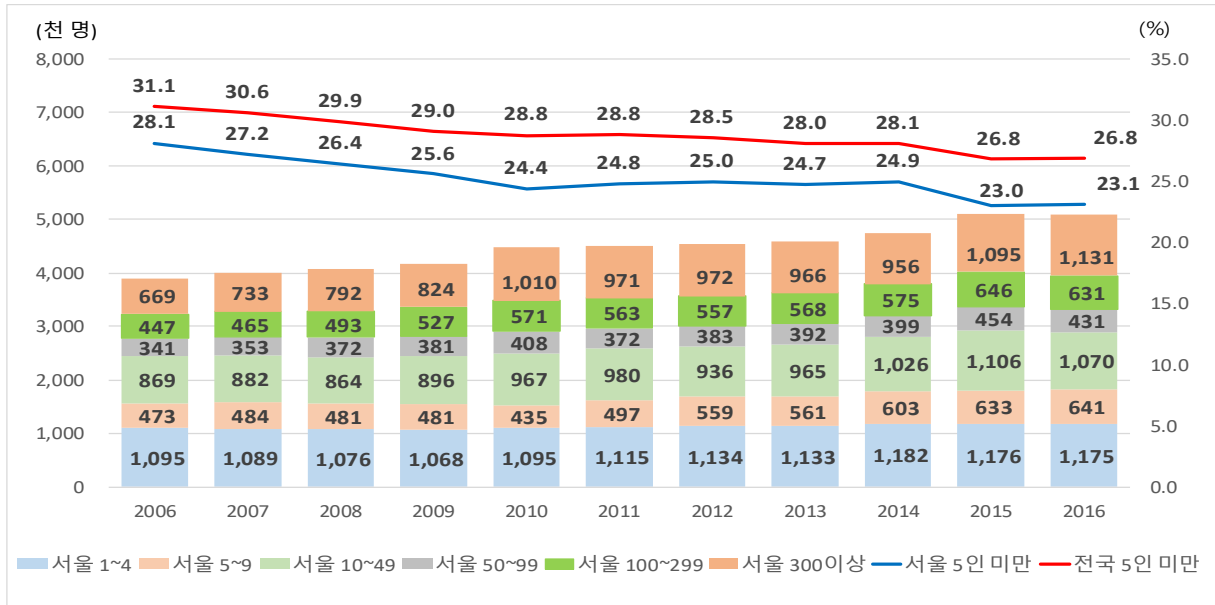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KOSIS

□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 감소 추세. 2006년 28.1%→2016년 23.1%로 5.0%p ↓

- 서울의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 2006년 28.1%에서 2016년 23.1%로 5.0%p 하락 (전국 26.8%)
-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수가 감소한 것은 아님. 다만,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는 2006년 66만 9천 명(17.2%)에서 2016년 113만 1천 명(22.3%)로 증가
- 영세사업체보다 대규모의 사업체 종사 인원의 증가는 서울의 노동시장에서 대규모 사업체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

[그림-8]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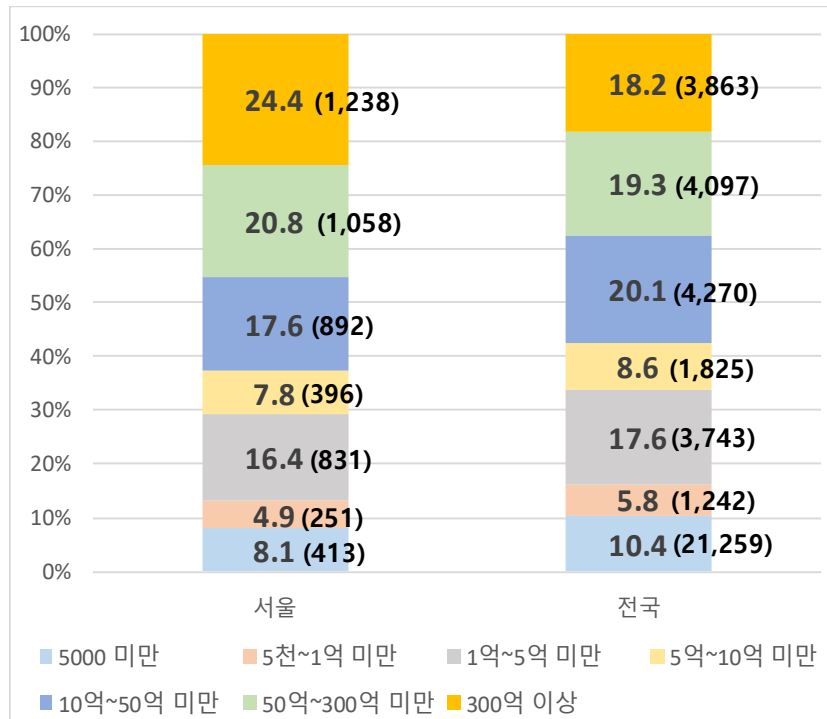
□ 연매출 50억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 45.2%, 300억 이상 종사자 비율 24.4%⁵⁾

- 서울의 종사자는 연매출 50억 이상인 사업체에 소속된 비율이 45.2% (229만 6천 명) (전국 37.5%)
- 연매출 300억 이상은 24.4% (123만 8천 명) (전국 18.2%)
- 서울의 종사자는 고매출 사업체에 속한 비율이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연매출 기준 서울의 종사자 분포는 300억 이상이 18.2%(124만 명)로 가장 많았고, 50~300억 미만이 24.4%(106만 명), 10~50억 미만 20.8%(89만 명), 10억~50억 미만 17.6%(89만 2천 명), 1억~5억 미만 16.4%(83만 명), 5천만 원 미만 8.1%(41만 명), 5~10억 미만 7.8%(40만 명), 5천~1억 미만 4.9%(25만 명) 순이었음.

5) 매출액별 비교는 자료의 한계로, 2016년 한해만을 횡단 분석함.

[그림-9] 매출액별 종사자 비율 (인원)

(%, 천 명)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6년 원자료 활용

Ⅲ. 서울의 고용 동향

[생산인구 동향]

- 전국 중 서울의 15세이상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19.9%(861만 명)→19.7%(858만 명)로 0.2%p(3만 명) ↓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2.9%로 전년과 동일. 다만, 경제활동인구 539만 명→537만 명으로 2만 명 ↓

[취업자 동향]

- 서울의 고용률 60.0%로 전년과 동일. 다만, 취업자수 516만 5천 명에서 514만 6천 명으로 1만 9천 명 ↓
-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 80.4%→80.9%로 0.5%p ↑
-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 36.7%→35.7%로 1.0%p ↓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 63.3%→65.1%로 1.8%p ↑

[실업자 동향]

- 전 연령 실업률 4.2%(22만 6천 명)로 동일
- 전 연령 확장실업률 9.9%(56만 2천 명)→9.5%(53만 1천 명)로 0.4%p(3만 1천 명) ↓
- 청년 실업률 8.4%(8만 7천 명)→10.2%(9만 7천 명)로 1.8%p(1만 명) ↑
- 청년 확장실업률 19.3%(20만 7천 명)에서 20.1%(21만 명)로 0.8%p(3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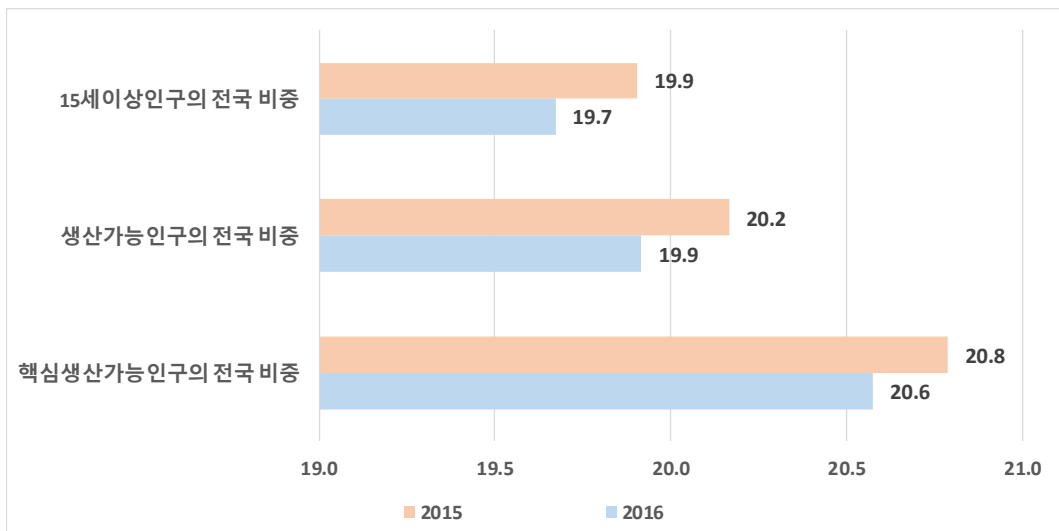
1. 생산인구 동향

□ 전국 중 서울의 15세이상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19.9%→19.7%로 0.2%p ↓

- 2016년 서울의 15세이상인구, 생산가능인구, 핵심생산가능인구 모두 감소
- 15세이상인구 19.9%(861만 1천 명)에서 19.7%(858만 3천 명)로 0.2%p(2만 8천 명) 하락
- 생산가능인구⁶⁾ 20.2%(740만 4천 명)에서 19.9%(733만 8천 명)로 0.3%p(6만 6천 명) 하락
- 핵심생산가능인구⁷⁾ 20.8%(408만 명)에서 20.6%(400만 5천 명)로 0.2%p(7만 5천 명) 하락

[그림-10] 전국 중 서울의 생산인구 비중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KOSIS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표-2> 생산인구

(천 명)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15세이상인구	8,611	8,583	-28	43,239	43,606	367
생산가능인구	7,404	7,338	-66	36,713	36,842	129
핵심생산가능인구	4,080	4,005	-75	19,624	19,465	-15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KOSIS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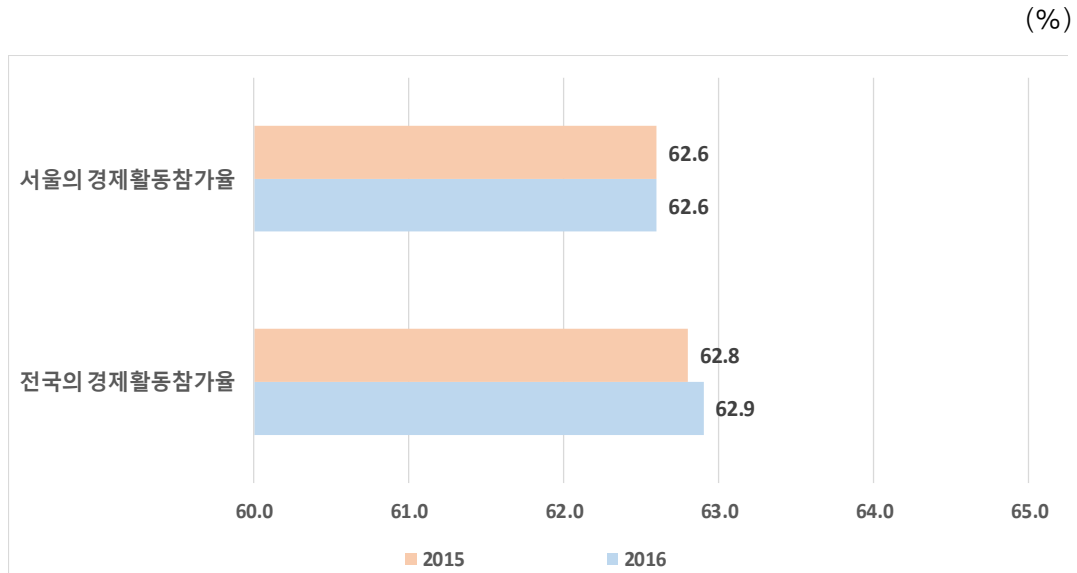
6)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의 인구를 의미함.

7) 핵심생산가능인구는 25세~49세의 인구를 의미함.

□ **경제활동참가율⁸⁾ 62.6%로 전년과 동일**

- 2016년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전년과 동일 (전국 62.9%)
- 다만, 경제활동인구는 539만 1천 명에서 537만 2천 명으로 1만 9천 명 감소

[그림-11]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KOSIS

<표-3> 경제활동인구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경제활동인구	5,391	5,372	-19	27,153	27,418	265
비경제활동인구	3,220	3,211	-9	16,086	16,187	1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KOSIS

2. 취업자 동향

□ **고용률⁹⁾ 60.0%로 전년과 동일**

- 2016년 서울의 고용률은 60.0%로 전년과 동일
- 다만, 서울의 취업자는 516만 5천 명에서 514만 6천 명으로 1만 9천 명 감소
- 취업자 감소는 30대와 50대, 남성, 중졸이하, 서울 소재 사업체에서 나타남.
- 취업자 증가는 60대 이상, 여성, 전문대졸이상, 서울 외 소재 사업체에서 나타남.

8) 15세이상인구 중 취업을 했거나(취업자) 구직 중인 사람들(실업자)의 비율

9) 15세이상인구 중 취업자 비율

〈표-4〉 취업자의 인구사회적 변동

(천 명, %)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고용률(%)	60.0	60.0	0.0	60.5	60.6	0.1	
인원	5,165	5,146	-19	26,178	26,409	231	
연령	15~29	843 (16.3)	850 (16.5)	7 (0.2)	3,864 (14.8)	3,908 (14.8)	44 (0.0)
	30대	1,252 (24.2)	1,220 (23.7)	-32 (-0.5)	5,729 (21.9)	5,672 (21.5)	-57 (-0.4)
	40대	1,273 (24.6)	1,275 (24.8)	2 (0.1)	6,892 (26.3)	6,832 (25.9)	-60 (-0.5)
	50대	1,168 (22.6)	1,144 (22.2)	-24 (-0.4)	6,068 (23.2)	6,150 (23.3)	82 (0.1)
	60대 이상	629 (12.2)	657 (12.8)	28 (0.6)	3,625 (13.8)	3,848 (14.6)	223 (0.7)
성별	남	2,896 (56.1)	2,872 (55.8)	-24 (-0.3)	15,156 (57.9)	15,241 (57.7)	85 (-0.2)
	여	2,269 (43.9)	2,274 (44.2)	5 (0.3)	11,022 (42.1)	11,168 (42.3)	146 (0.2)
학력	중졸이하	620 (12.0)	572 (11.1)	-48 (-0.9)	4,336 (16.6)	4,190 (15.9)	-146 (-0.7)
	고졸	1,796 (34.8)	1,792 (34.8)	-4 (0.1)	10,386 (39.7)	10,415 (39.4)	29 (-0.2)
	전문대졸이상	2,750 (53.2)	2,782 (54.1)	32 (0.8)	11,456 (43.8)	11,805 (44.7)	349 (0.9)
거주지역 &사업체 지역	둘 다 서울 ¹⁰⁾	4,502 (87.2)	4,479 (87.0)	-23 (-0.2)	-		
	서울 거주&비서울 사업체 ¹¹⁾	647 (12.5)	661 (12.8)	14 (0.3)			
	비서울 거주&서울 사업체 ¹²⁾	1,421	1,406	-15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 KOSIS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 80.4%→80.9%로 0.5%p ↑

- 2016년 서울의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은 전년 80.4%(402만 6천 명)에서 80.9%(404만 1천 명)로 0.5%p(1만 5천 명) 상승 (전국 77.8%)

□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 36.7%→35.7%로 1.0%p ↓

- 서울의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36.7%(147만 9천 명)에서 35.7%(144만 1천 명)로 1.0%p(3만 8천 명) 하락 (전국 48.7%)

10) 거주지역과 종사하는 사업체의 행정상 소재지가 두 곳 모두 서울인 집단

11) 거주지역은 행정상 서울인 반면, 종사하는 사업체의 행정상 소재지는 다른 지역인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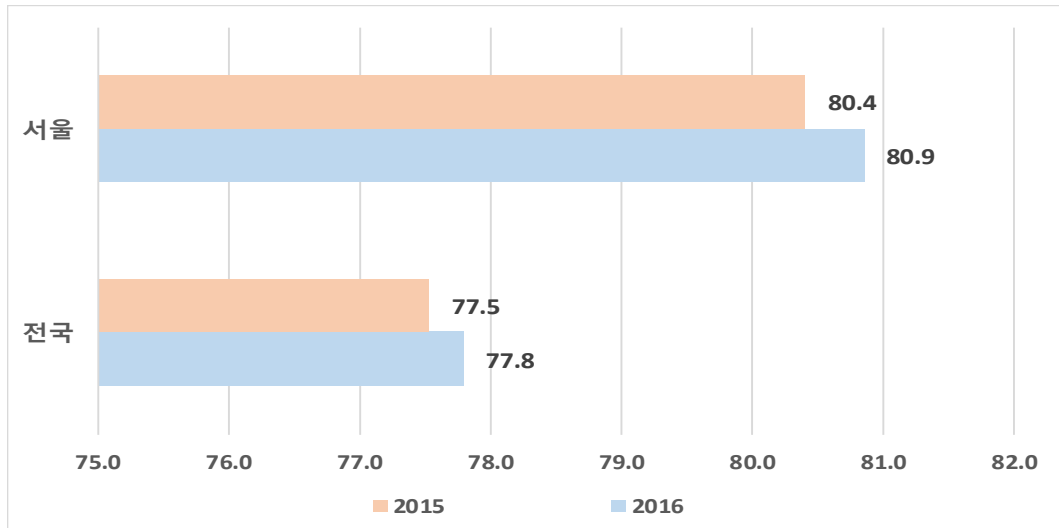
12) 거주지역은 행정상 다른 지역인 반면, 종사하는 사업체의 행정상 소재지는 서울인 집단. 비율은 행정상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비서울 거주&서울 사업체인 집단은 비율이 표시되지 않음.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 63.3%→65.1%로 1.8%p ↑

- 서울의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63.3%(36만 명)에서 65.1%(33만 4천 명)로 1.8%p(2만 6천 명) 상승 (전국 71.8%)

[그림-12]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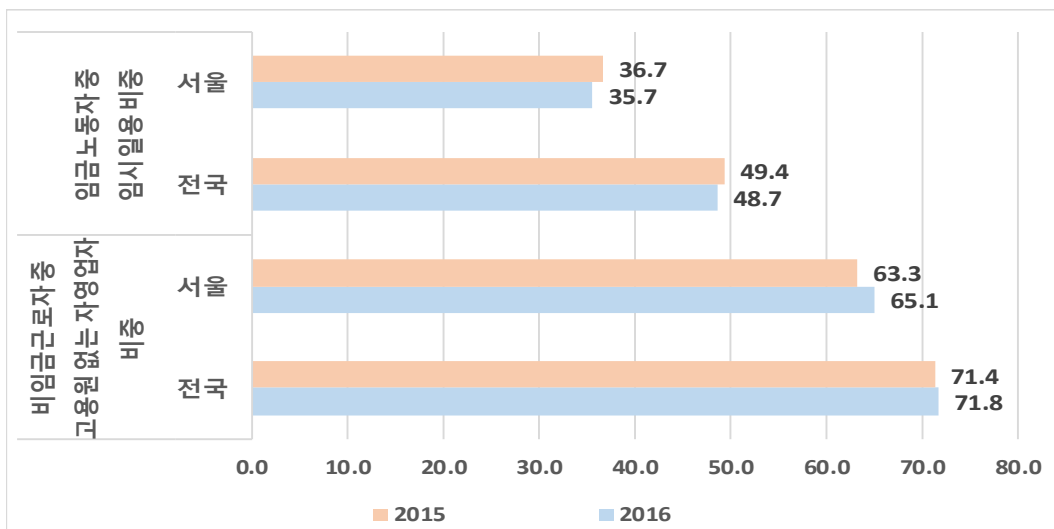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KOSIS

[그림-13] 종사상 지위별 비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KOSIS

〈표-5〉 임금/비임금 근로자

(천 명)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임금 근로자	4,026	4,041	15	19,402	19,669	267
비임금 근로자	981	957	-24	5,622	5,614	-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KOSIS

〈표-6〉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천 명)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상용직	2,547	2,600	53	12,716	13,062	346
임시일용직	1,479	1,441	-38	9,593	9,580	-1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60	334	-26	1,609	1,584	-2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621	623	2	4,013	4,030	1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KOSIS

3. 실업자 동향¹³⁾

□ 실업률과 확장실업률, 전 연령은 개선됐지만 청년은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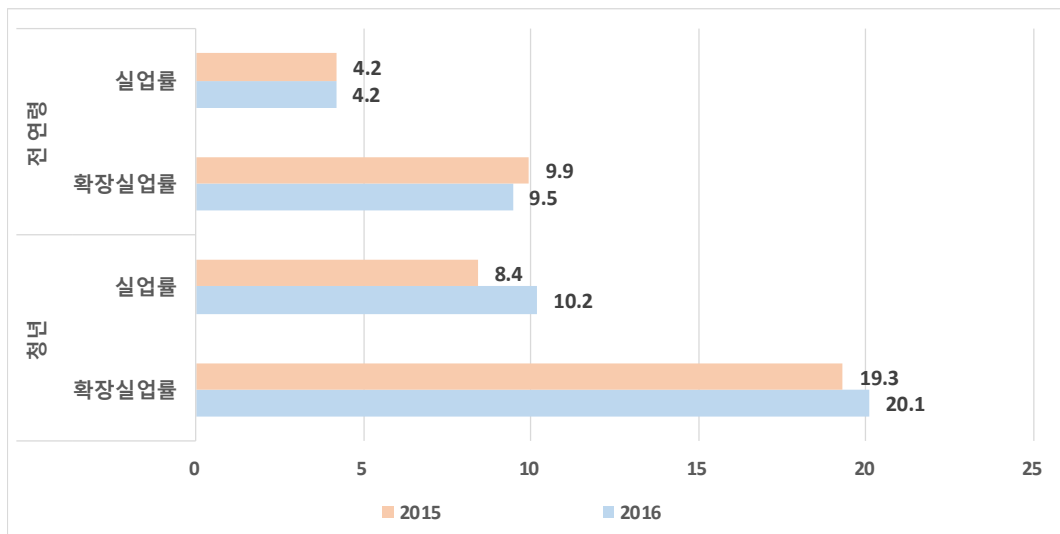
- 전 연령의 실업률 4.2%(22만 6천 명)로 전년과 동일
- 전 연령의 확장실업률¹⁴⁾ 9.9%(56만 2천 명)에서 9.5%(53만 1천 명)로 0.4%p(3만 1천 명) 하락
- 청년 실업률 8.4%(8만 7천 명)에서 10.2%(9만 7천 명)로 1.8%p(1만 명) 상승
- 청년 확장실업률 19.3%(20만 7천 명)에서 20.1%(21만 명)로 0.8%p(3천 명) 상승

13) 실업자 동향은 서울의 수치만을 제시함.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는 전국 확장실업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본 분석이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해 산출한 서울의 확장실업률을 이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14) 확장실업률은 통계청에서 활용되는 고용보조지표3임. 고용보조지표3은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며, 흔히 체감실업률로 이해되기도 함. 현재 서울의 확장실업자(고용보조지표3)는 자료적 한계로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산출되기 어려움.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소한의 가정과 한계로 추정치를 지역별 고용조사로 산출함.

[그림-14] 실업률과 확장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KOSIS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표-7> 실업자와 확장실업자

(천 명)

		2015	2016	증감
전 연령	실업자	226	226	-
	확장실업자	562	531	-31
청년	실업자	87	97	10
	확장실업자	207	210	3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 KOSIS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 전 연령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감소

- 전 연령은 확장실업자¹⁵⁾를 구성하는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¹⁶⁾, 잠재취업가능자¹⁷⁾, 잠재구직자¹⁸⁾에서 감소

15) 확장실업자는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로 구성됨.

16) 확장실업자 중 시간관련추가취업자는 36시간 단시간 노동자 중 추가로 취업을 원하고 가능한 사람을 의미함. 현재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지역 수준으로 산출되지 못함. 따라서 동일시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단시간노동자 중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비율”이 이용됨. 그리고 본 보고서는 이 비율을 지역별 고용조사의 단시간노동자에 곱하여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 산출함. 이 방법의 한계는 모든 지역이 단시간노동자 중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의 비중이 동일하다고 전제했다는 것임.

17)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을 뜻함. 지역별 고용조사는 잠재취업가능자를 산출하기 위한 항목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

18) 통계청에 따르면,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임. 대표적으로, 취업준비생이 해당함. 그러나 자료적 한계로 본 보고서는 ‘취업가능 여부’를 제외한 정의를 사용하며, 통계청의 정의보다 과대추정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의 잠재구직자는 준잠재구직자라고 할 수 있음. 굳이 정의를 하자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8만 8천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1만 3천 명 감소
- 잠재취업가능자 1만 9천 명에서 1만 7천 명으로 2천 명 감소
- 잠재구직자 22만 9천 명에서 21만 4천 명으로 1만 5천 명 감소

□ 청년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증가,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 감소

- 청년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증가하였고,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 감소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1만 4천 명에서 1만 6천 명으로 2천 명 증가
- 잠재취업가능자 9천 명에서 7천 명으로 2천 명 감소
- 잠재구직자 9만 7천 명에서 8만 9천 명으로 8천 명 감소
- 2016년 서울의 청년 실업상황은 취업을 준비하는 잠재구직자(ex.취준생)가 줄고, 취업에 의지가 있고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실업자가 증가함.

〈표-8〉 확장실업자 구성

(천 명)

		2015	2016	증감
전 연령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88	75	-13
	잠재취업가능자	19	17	-2
	잠재구직자	229	214	-15
청년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14	16	2
	잠재취업가능자	9	7	-2
	잠재구직자	97	89	-8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주 :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최소한의 가정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임.

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한 자라고 할 수 있음.

IV. 서울의 취약계층 노동자 동향

[청년 노동자]

- 고용률 43.8%→44.6%로 0.8%p ↑
- 임시일용직 비율 40.0%→39.7%로 0.3%p ↓
- 최저임금 미달자 13.3%→13.6%로 0.3%p ↑

[여성 노동자]

- 고용률 50.7%→50.9%로 0.2%p ↑
- 임시일용직 비율 43.7%→42.3%로 1.4%p ↓
- 최저임금 미달자 14.2%→16.2%로 2.0%p ↑

[노인 노동자]

- 고용률 25.9%→25.7%로 0.2%p ↓
- 임시일용직 비율 74.9%→69.8%로 5.1%p ↓
- 최저임금 미달자 43.1%→46.5%로 3.4%p ↑

[기간제 노동자]

- 전체 노동자 중 기간제 노동자 비율 17.6%→14.4%로 3.2%p ↓
- 최저임금 미달자 20.3%→20.2%로 0.1%p ↓

[시간제(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

- 전체 노동자 중 단시간 노동자 14.0%→19.4%로 5.4%p ↑
-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3.0%→3.2%로 0.2%p ↑
- 최저임금 미만 단시간 노동자 23.6%→19.0%로 4.6%p ↓
- 최저임금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25.2%→32.9%로 7.7%p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10.5%→11.8%로 1.3%p ↑
- 시간당 최저임금 미달액 5억 1백만 원→5억 8천 4백만 원으로 8천 3백만 원 ↑
- 1인당 시간당 최저임금 미달액 1,187원→1,223원으로 36원 ↑
- 음식숙박업과 보건사회복지업에서 각각 1만 1천 명, 1만 3천 명 ↑
- 사무 및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서 각각 1만 5천 명, 3만 2천 명 ↑

[영세 자영업자]

- 서울의 자영업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36.1%
- 운수업(86.3%), 협회 및 단체·개인서비스업(63.7%), 교육서비스업(44.7%), 부동산업(41.2%), 예술스포츠업(40.6%)에서 영세자영업자 비율 높아
- 서울 종사자 중 영세자영업체 종사자 비율은 8.1%

[임금체불]

- 위반 사업체 29,665개→30,333개로 668개 ↑
- 체불당한 노동자 63,960명→62,854명으로 1,106명 ↓
- 임금체불 총액 3,179억→3,096억으로 83억 ↓
- 임금체불총액 30인 이상에서 감소, 30인 미만에선 오히려 증가
- 임금체불액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233억과 28억 ↓, 서비스업에선 ↑

1. 인적속성 구분

1) 청년 노동자¹⁹⁾

□ 고용률 43.8%→44.6%로 0.8%p ↑

- 2016년 서울의 청년 고용률 43.8%(78만 5천 명)에서 44.6%(79만 7천 명)로 0.8%p(1만 2천 명) 상승 (전국 41.7%)
- 20~24세, 여성, 서울 외 소재 사업체에서 증가
- 20~24세 33.6%(26만 4천 명)에서 34.1%(27만 2천 명)로 0.5%p(8천 명) 상승
- 여성 57.8%(45만 4천 명)에서 58.1%(26만 3천 명)로 0.3%p(9천 명) 상승
- 서울 거주&서울 외 사업체 9.0%(7만 1천 명)에서 9.8%(7만 8천 명)로 0.7%p(7천 명) 상승
- 서울 비거주&서울 사업체 29만 명에서 28만 1천 명으로 9천 명 감소

〈표-9〉 청년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변동

(천 명, %)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고용률(%)		43.8	44.6	0.8	41.2	41.7	0.5
인원		785	797	12	3,627	3,663	36
연령	15~19세	40 (5.1)	41 (5.1)	1 (0.0)	217 (6.0)	216 (5.9)	-1 (-0.1)
	20~24세	264 (33.6)	272 (34.1)	8 (0.5)	1,353 (37.3)	1,335 (36.4)	-18 (-0.9)
	25~29세	481 (61.3)	485 (60.9)	4 (-0.4)	2,057 (56.7)	2,112 (57.7)	55 (0.9)
성별	남	332 (42.3)	335 (42.0)	3 (-0.3)	1,726 (47.6)	1,745 (47.6)	19 (0.1)
	여	454 (57.8)	463 (58.1)	9 (0.3)	1,901 (52.4)	1,918 (52.4)	17 (-0.1)
학력	중졸이하	12 (1.5)	15 (1.9)	3 (0.4)	87 (2.4)	93 (2.5)	6 (0.1)
	고졸	279 (35.5)	285 (35.8)	6 (0.2)	1,449 (40.0)	1,464 (40.0)	15 (0.0)
	전문대졸이상	494 (62.9)	497 (62.4)	3 (-0.6)	2,091 (57.7)	2,106 (57.5)	15 (-0.2)

19) 연령이 15~29세인 노동자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거주지역 &사업체 지역	둘 다 서울	715 (91.1)	719 (90.2)	4 (-0.9)	-		
	서울 거주 &비서울 사업체	71 (9.0)	78 (9.8)	7 (0.7)			
	비서울 거주 &서울 사업체	290	281	-9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 KOSIS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 **임시일용직 비율 40.0%→39.7%로 0.3%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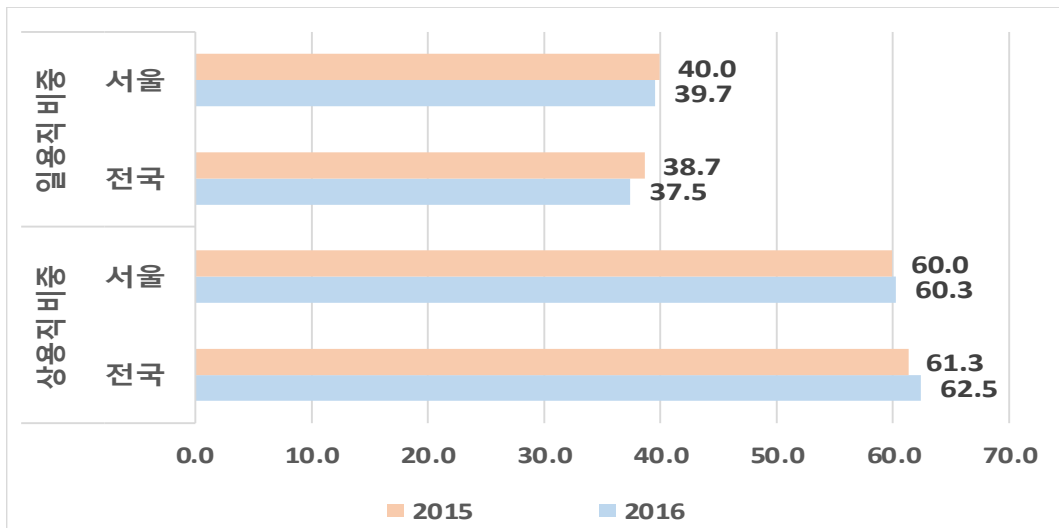
- 2016년 서울 청년 노동자의 임시일용직은 40.0%(31만 4천 명)에서 39.7%(31만 6천 명)로 0.3%p(2천 명) 하락 (전국 37.5%)
- 상용직은 47만 1천 명에서 48만 1천 명으로 1만 명 증가

□ **최저임금 미달자 13.3%→13.6%로 0.3%p ↑**

- 2016년 서울의 청년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은 13.3%(10만 5천 명)에서 13.6%(10만 8천 명)로 0.3%p(3천 명) 상승 (전국 16.1%)

[그림-15] 청년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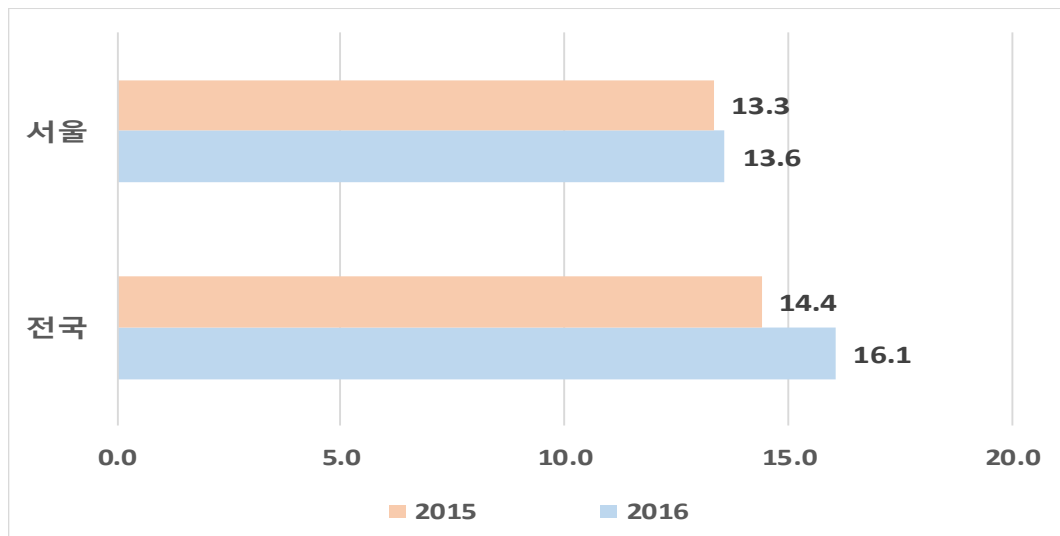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그림-16] 청년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표-10> 청년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천 명)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상용직	471	481	10	2,224	2,289	65
임시일용직	314	316	2	1,404	1,374	-30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표-11> 청년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천 명)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105	108	3	522	589	67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2) 여성 노동자

□ 고용률 50.7%→50.9%로 0.2%p ↑

- 2016년 서울의 여성 고용률은 50.7%(184만 2천 명)에서 50.9%(187만 2천 명)로 0.2%p(3만 명) 상승 (전국 50.3%)
- 60세 이상, 전문대졸이상, 서울 소재 사업체에서 증가
- 60세 이상 여성 노동자 비율 9.8%(18만 1천 명)에서 10.8%(20만 3천 명)로 1.0%p(2만 2천 명) 상승
- 전문대졸이상 비율 52.6%(96만 9천 명)에서 52.8%(98만 8천 명)로 0.2%p(1만 9천 명) 상승

명) 상승

- 서울 거주 & 서울 사업체 비율 92.0%(169만 4천 명)에서 92.1%(172만 4천 명)로 0.1%p(3만 명) 상승
- 서울 비거주&서울 사업체가 46만에서 46만 7천 명으로 7천 명 증가

〈표-12〉 여성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변동

(천 명, %)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고용률(%)		50.7	50.9	0.2	50.1	50.3	0.2
인원		1,842	1,872	30	8,447	8,638	191
연령	15~29	454 (24.6)	463 (24.7)	9 (0.1)	1,901 (22.5)	1,918 (22.2)	17 (-0.3)
	30대	436 (23.7)	429 (22.9)	-7 (-0.8)	1,793 (21.2)	1,822 (21.1)	29 (-0.1)
	40대	413 (22.4)	418 (22.3)	5 (-0.1)	2,155 (25.5)	2,139 (24.8)	-16 (-0.7)
	50대	358 (19.4)	359 (19.2)	1 (-0.3)	1,699 (20.1)	1,761 (20.4)	62 (0.3)
	60대 이상	181 (9.8)	203 (10.8)	22 (1.0)	898 (10.6)	998 (11.6)	100 (0.9)
학력	중졸이하	264 (14.3)	267 (14.3)	3 (-0.1)	1,478 (17.5)	1,477 (17.1)	-1 (-0.4)
	고졸	609 (33.1)	617 (33.0)	8 (-0.1)	3,223 (38.2)	3,254 (37.7)	31 (-0.5)
	전문대졸이상	969 (52.6)	988 (52.8)	19 (0.2)	3,745 (44.3)	3,907 (45.2)	162 (0.9)
거주지역 &사업체 지역	둘 다 서울	1,694 (92.0)	1,724 (92.1)	30 (0.1)	-		
	서울 거주 &비서울 사업체	148 (8.0)	148 (7.9)	0 (-0.1)			
	비서울 거주 &서울 사업체	460	467	7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 KOSIS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 **임시일용직 비율 43.7%→42.3%로 1.4%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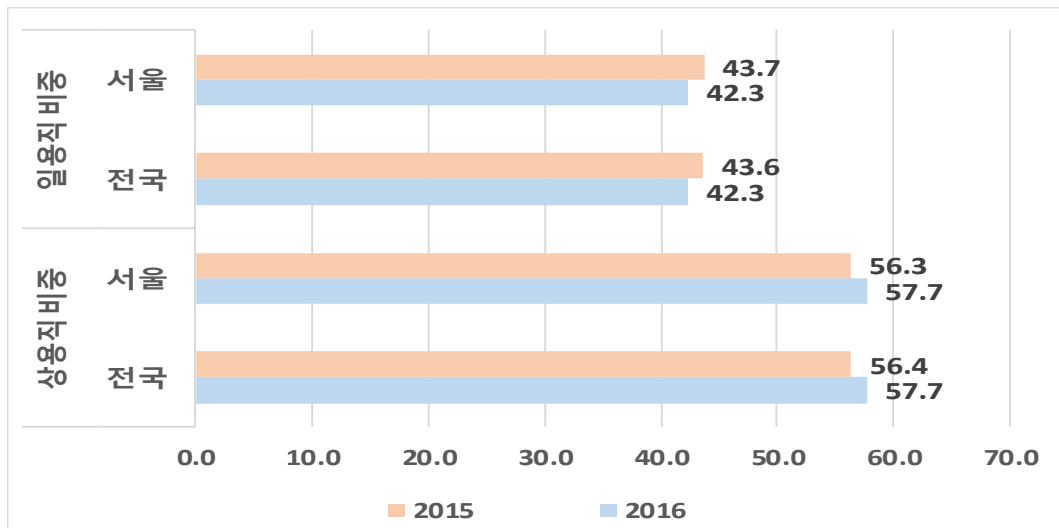
- 여성 노동자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43.7%(80만 5천 명)에서 42.3%(79만 2천 명)로 1.4%p(1만 3천 명) 하락 (전국 42.3%)
- 상용직 103만 7천 명에서 108만 명으로 4만 3천 명 증가

□ **최저임금 미달자 14.2%→16.2%로 2.0%p ↑**

- 여성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14.2%(26만 2천 명)에서 16.2%(30만 3천 명)로 2.0%p(4만 1천 명) 상승

[그림-17] 여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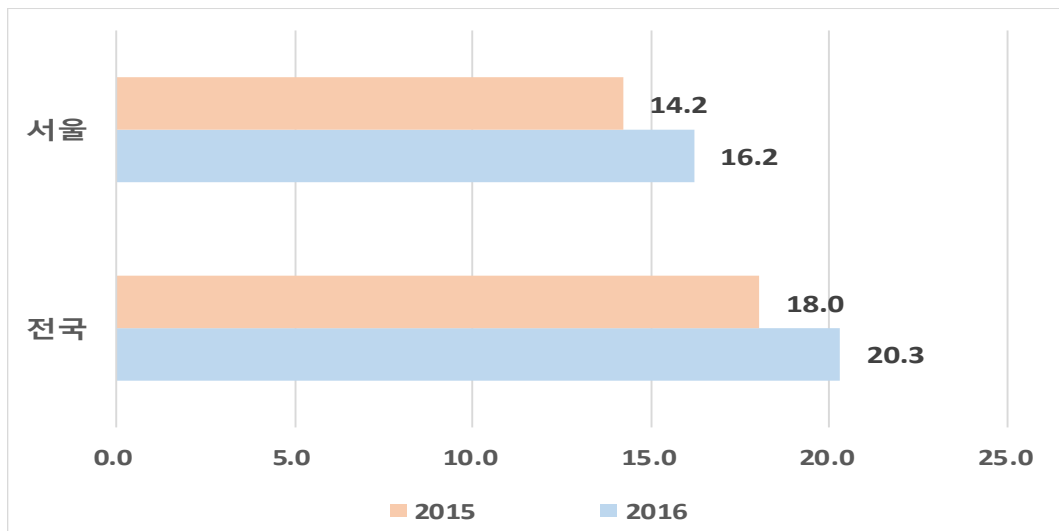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그림-18] 여성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표-13> 여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천 명)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상용직	1,037	1,080	43	4,760	4,983	223
임시일용직	805	792	-13	3,687	3,655	-32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표-14〉 여성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천 명)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262	303	41	1,524	1,754	230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3) 노인 노동자²⁰⁾

□ 고용률 25.9%→25.7%로 0.2%p ↓

- 고용률은 하락했지만, 2016년 서울의 노인 노동자는 20만 4천 명에서 21만 7천 명으로 1만 3천 명 증가
- 후기 고령자, 여성, 서울 소재 사업체에서 증가
- 75세 이상 비율 14.2%(2만 9천 명)에서 16.6%(3만 6천 명)로 2.4%p(7천 명) 상승
- 여성 비율 45.1%(9만 2천 명)에서 46.1%(10만 1천 명)로 1.4%p(9천 명) 상승
- 서울 거주&서울 사업체 비율 90.7%(18만 5천 명)에서 92.2%(20만 명)로 1.5%p 상승
- 서울 비거주&서울 외 사업체 2만 5천 명에서 2만 9천 명으로 4천 명 증가

〈표-15〉 노인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변동

(천 명, %)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고용률(%)	25.9	25.7	-0.2	30.4	30.6	0.2	
인원	204	217	13	989	1,064	75	
연령	65~69	107 (52.5)	110 (50.7)	3 (-1.8)	487 (49.2)	518 (48.7)	31 (-0.6)
	70~74	68 (33.3)	71 (32.7)	3 (-0.6)	300 (30.3)	311 (29.2)	11 (-1.1)
	75세 이상	29 (14.2)	36 (16.6)	7 (2.4)	201 (20.3)	235 (22.1)	34 (1.8)
성별	남	111 (54.4)	116 (53.5)	5 (-1.0)	500 (50.6)	531 (49.9)	31 (-0.7)
	여	92 (45.1)	101 (46.5)	9 (1.4)	488 (49.3)	533 (50.1)	45 (0.8)
학력	중졸이하	120 (58.8)	127 (58.5)	7 (-0.3)	672 (67.9)	722 (67.9)	50 (-0.1)
	고졸	56 (27.5)	59 (27.2)	3 (-0.3)	222 (22.4)	240 (22.6)	18 (0.1)
	전문대졸이상	28 (13.7)	31 (14.3)	3 (0.6)	95 (9.6)	103 (9.7)	8 (0.1)

20)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동자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거주지역 &사업체 지역	둘 다 서울	185 (90.7)	200 (92.2)	15 (1.5)			
	서울 거주&비서울 사업체	19 (9.3)	16 (7.4)	-3 (-1.9)		-	
	비서울 거주&서울 사업체	25	29	4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 KOSIS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 **임시일용직 비율 74.9%→69.8%로 5.1%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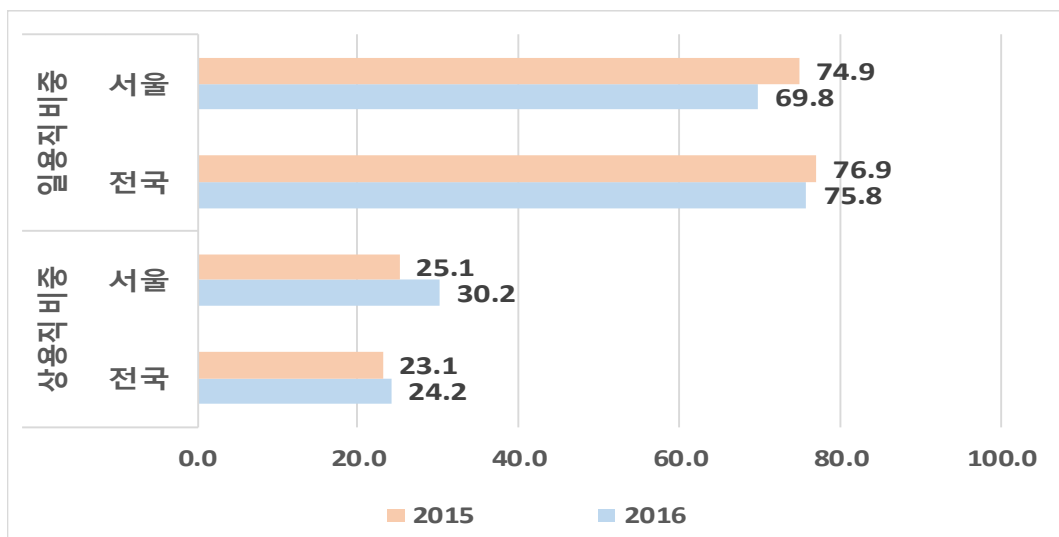
- 임시일용직 비율이 74.9%(15만 2천 명)에서 69.8%(15만 1천 명)로 5.1%p(1천 명) 하락 (전국 75.8%)
- 상용직 5만 1천 명에서 6만 6천 명으로 1만 5천 명 증가

□ **최저임금 미달자 43.1%→46.5%로 3.4%p ↑**

- 서울의 노인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43.1%(8만 8천 명)에서 46.5%(10만 1천 명)로 3.4%p(1만 3천 명) 상승 (전국 54.3%)
- 서울 노인 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높았음.

[그림-19] 노인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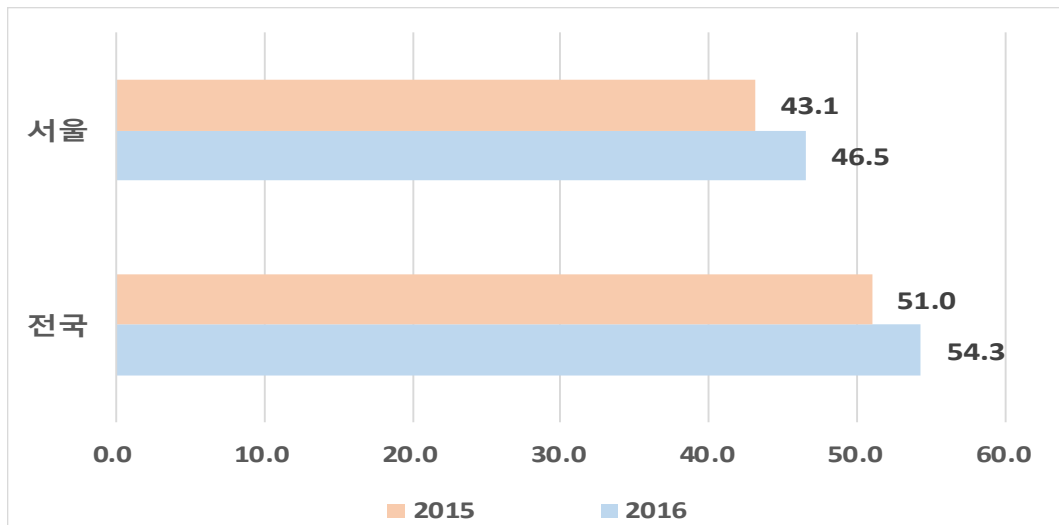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그림-20] 노인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표-16> 노인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천 명)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상용직	51	66	15	228	257	29
임시일용직	152	151	-1	761	807	46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표-17> 노인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천 명)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88	101	13	504	578	74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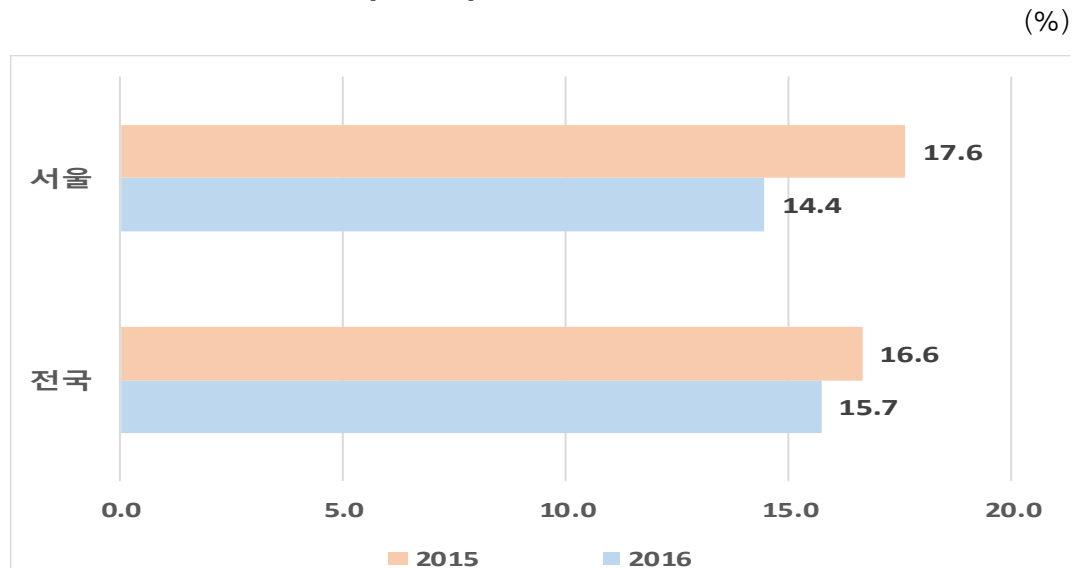
2. 노동시장 불안정성 구분

1) 기간제 노동자²¹⁾

□ 전체 노동자 중 기간제 노동자 비율 17.6%→14.4%로 3.2%p ↓

- 기간제 노동자 17.6%(70만 7천 명)에서 14.4%(58만 3천 명)로 3.2%p(12만 4천 명) 하락 (전국 15.7%)
- 15~29세, 40대, 50대, 고졸, 서울 소재 사업체에서 주요 감소
- 15~29세 22.6%(16만 명)에서 21.6%(12만 6천 명)로 1.0%p(3만 4천 명) 하락
- 40대 19.9%(14만 1천 명)에서 19.0%(11만 1천 명)로 0.9%p(3만 명) 하락
- 50대 21.6%(15만 3천 명)에서 20.6%(12만 명)로 1.1%p(3만 3천 명) 하락
- 학력이 고졸인 집단이 40.7%(28만 8천 명)에서 36.9%(21만 5천 명)로 3.9%(7만 3천 명) 하락
- 서울거주&서울사업체 89.5%(63만 3천 명)에서 87.5%(51만 명)로 2.1%p(12만 3천 명) 하락
- 비서울거주&서울사업체 18만 2천 명에서 16만 1천 명으로 2만 1천 명 감소

[그림-21] 기간제 노동자 비율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21) 기간제 노동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한 노동자를 의미함.

〈표-18〉 기간제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변동

(천 명, %)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인원		707	583	-124	3,237	3,093	-144
연령	15~29	160 (22.6)	126 (21.6)	-34 (-1.0)	673 (20.8)	618 (20.0)	-55 (-0.8)
	30대	112 (15.8)	98 (16.8)	-14 (1.0)	539 (16.7)	489 (15.8)	-50 (-0.8)
	40대	141 (19.9)	111 (19.0)	-30 (-0.9)	646 (20.0)	593 (19.2)	-53 (-0.8)
	50대	153 (21.6)	120 (20.6)	-33 (-1.1)	644 (19.9)	607 (19.6)	-37 (-0.3)
	60대 이상	140 (19.8)	127 (21.8)	-13 (2.0)	736 (22.7)	787 (25.4)	51 (2.7)
성별	남	338 (47.8)	279 (47.9)	-59 (0.0)	1,549 (47.9)	1,447 (46.8)	-102 (-1.1)
	여	369 (52.2)	304 (52.1)	-65 (0.0)	1,688 (52.1)	1,646 (53.2)	-42 (1.1)
학력	중졸이하	148 (20.9)	125 (21.4)	-23 (0.5)	812 (25.1)	800 (25.9)	-12 (0.8)
	고졸	288 (40.7)	215 (36.9)	-73 (-3.9)	1,296 (40.0)	1,221 (39.5)	-75 (-0.6)
	전문대졸이상	270 (38.2)	243 (41.7)	-27 (3.5)	1,129 (34.9)	1,072 (34.7)	-57 (-0.2)
거주지역 &사업체 지역	둘 다 서울	633 (89.5)	510 (87.5)	-123 (-2.1)			
	서울 거주&비서울 사업체	74 (10.5)	73 (12.5)	-1 (2.1)			
	비서울 거주&서울 사업체	182	16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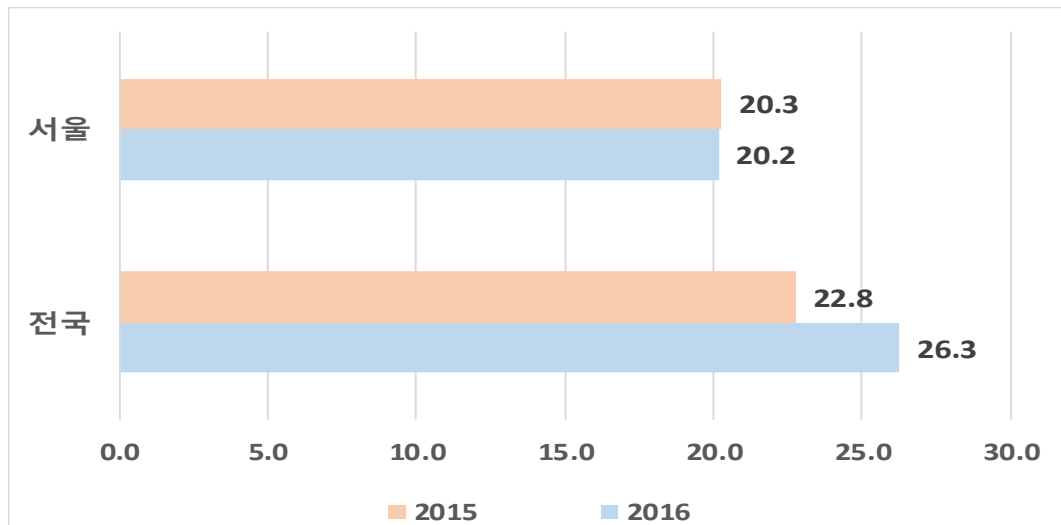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 최저임금 미달자 20.3%→20.2%로 0.1%p ↓

- 기간제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20.3%(14만 3천 명)에서 20.2%(11만 8천 명)로 0.1%p 하락 (전국 26.3%)

[그림-22] 기간제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표-19> 기간제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천 명)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최저임금 미만 기간제 노동자	143	118	-25	737	812	75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2) 시간제(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²²⁾

□ 전체 노동자 중 단시간 노동자 14.0%→ 19.4%로 5.4%p ↑

- 전체 노동자 중 단시간 노동자는 14.0%(56만 2천 명)에서 19.4%(78만 3천 명)로 5.4%p(22만 1천 명) 상승 (전국 18.0%)
- 단시간 노동자는 30대, 40대, 남성, 전문대졸 이상 집단에서 증가
- 30대 13.0%(7만 3천 명)에서 17.2%(13만 5천 명)로 4.3%p(6만 2천 명) 상승
- 40대 18.3%(10만 3천 명)에서 19.7%(15만 4천 명)로 1.3%p(5만 1천 명) 상승
- 남성 32.4%(18만 2천 명)에서 38.7%(30만 3천 명)로 6.3%p(12만 1천 명) 상승

22)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의미함.

그러나 주의할 것은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기간(2016.04.11.~15)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으로 시간제 노동자가 과대하게 표집됨. 이는 추후 단시간 노동자의 결과를 해석할 때 매우 유의해야할 사항임. 동일한 시기에 조사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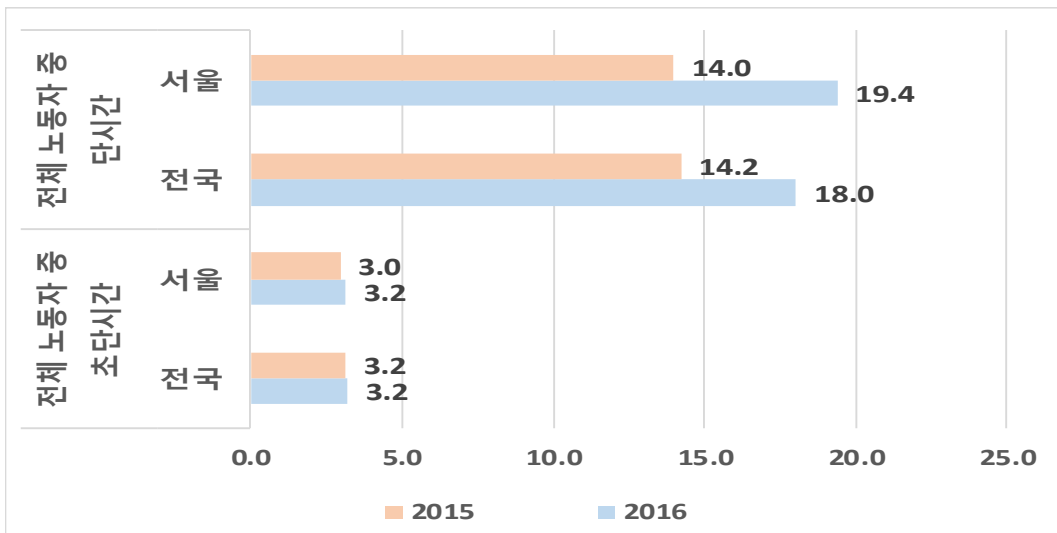
-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 33.8%(19만 명) 45.7%(35만 8천 명)로 11.9%p(16만 8천 명) 상승

□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는 3.0%→3.2%로 0.2%p ↑

-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는 3.0%(12만 명)에서 3.2%(12만 8천 명)로 0.2%p(8천 명) 상승 (전국 3.2%)
- 초단시간 노동자는 60대 이상, 여성, 중졸 이하에서 증가
- 초단시간 노동자, 60대 이상 33.3%(4만 명)에서 36.7%(4만 7천 명)로 3.4%p(7천 명) 상승
- 초단시간 노동자, 여성 71.7%(8만 6천 명)에서 71.9%(9만 2천 명)로 0.2%p(6천 명) 상승
- 초단시간 노동자, 학력 수준 중졸 이하 25.8%(3만 1천 명)에서 31.3%(4만 명)로 5.4%p(9천 명) 상승

[그림-23] 시간제(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 비율

(%)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표-20> 시간제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변동

(천 명, %)

	단시간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서울			전국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인원	562	783	221	2,771	3,552	781	120	128	8	615	634	19

		단시간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서울			전국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연령	15~29	145 (25.8)	192 (24.5)	47 (-1.3)	653 (23.6)	757 (21.3)	104 (-2.3)	44 (36.7)	46 (35.9)	2 (-0.7)	177 (28.8)	166 (26.2)	-11 (-2.6)
	30대	73 (13.0)	135 (17.2)	62 (4.3)	345 (12.5)	563 (15.9)	218 (3.4)	10 (8.3)	9 (7.0)	-1 (-1.3)	45 (7.3)	45 (7.1)	- (-0.2)
	40대	103 (18.3)	154 (19.7)	51 (1.3)	524 (18.9)	715 (20.1)	191 (1.2)	13 (10.8)	12 (9.4)	-1 (-1.5)	64 (10.4)	58 (9.1)	-6 (-1.3)
	50대	113 (20.1)	149 (19.0)	36 (-1.1)	535 (19.3)	701 (19.7)	166 (0.4)	14 (11.7)	13 (10.2)	-1 (-1.5)	56 (9.1)	53 (8.4)	-3 (-0.7)
	60대 이상	129 (23.0)	154 (19.7)	25 (-3.3)	715 (25.8)	815 (22.9)	100 (-2.9)	40 (33.3)	47 (36.7)	7 (3.4)	274 (44.6)	312 (49.2)	38 (4.7)
성별	남	182 (32.4)	303 (38.7)	121 (6.3)	924 (33.3)	1,301 (36.6)	377 (3.3)	34 (28.3)	36 (28.1)	2 (-0.2)	182 (29.6)	177 (27.9)	-5 (-1.7)
	여	380 (67.6)	480 (61.3)	100 (-6.3)	1,847 (66.7)	2,251 (63.4)	404 (-3.3)	86 (71.7)	92 (71.9)	6 (0.2)	432 (70.2)	457 (72.1)	25 (1.8)
학력	중졸 이하	127 (22.6)	141 (18.0)	14 (-4.6)	790 (28.5)	846 (23.8)	56 (-4.7)	31 (25.8)	40 (31.3)	9 (5.4)	248 (40.3)	275 (43.4)	27 (3.1)
	고졸	246 (43.8)	285 (36.4)	39 (-7.4)	1,207 (43.6)	1,389 (39.1)	182 (-4.5)	55 (45.8)	58 (45.3)	3 (-0.5)	241 (39.2)	235 (37.1)	-6 (-2.1)
	전문 대졸 이상	190 (33.8)	358 (45.7)	168 (11.9)	775 (28.0)	1,317 (37.1)	542 (9.1)	33 (27.5)	30 (23.4)	-3 (-4.1)	126 (20.5)	125 (19.7)	-1 (-0.8)
거주지역 & 사업체 지역	둘 다 서울	512 (91.1)	704 (89.9)	192 (-1.2)				109 (90.8)	118 (92.2)	9 (1.4)			
	서울거주 & 비서울 사업체	49 (8.7)	79 (10.1)	30 (1.4)				10 (8.3)	10 (7.8)	- (-0.5)			
	비서울 거주 & 서울사업체	115	165	50				22	18	-4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 최저임금 미만 단시간 노동자 23.6%→19.0%로 4.6%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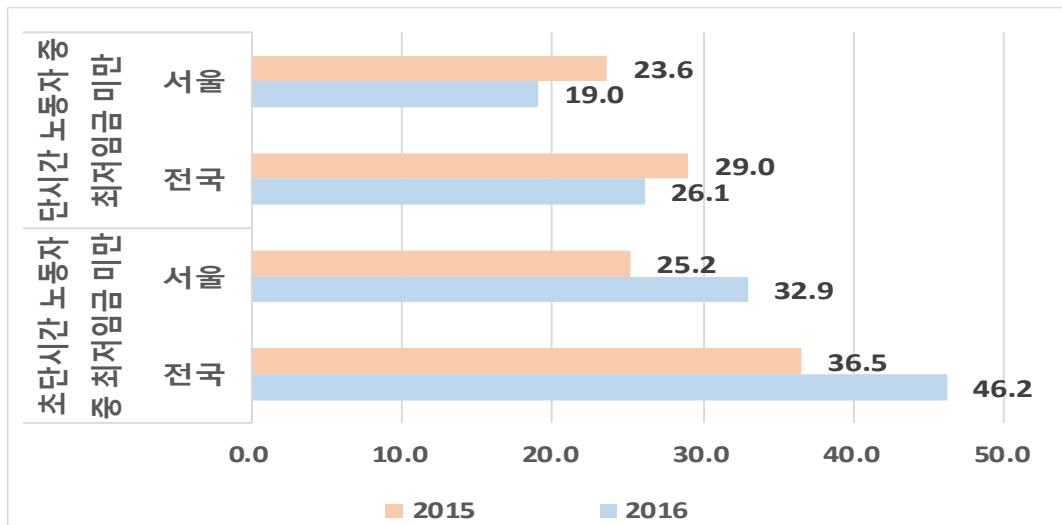
- 최저임금 미만 단시간 노동자 23.6%에서 19.0%로 4.6%p 하락 (전국 26.1%)
- 다만, 인원수는 13만 3천 명에서 14만 9천 명으로 전년대비 1만 6천 명이 증가²³⁾

□ 최저임금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25.2%→32.9%로 7.7%p ↑

- 최저임금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25.2%(3만 명)에서 32.9%(4만 2천 명)로 7.7%p 상승 (전국 46.2%)

23) 인원수는 증가했으나, 비율이 줄은 것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으로 단시간 노동자가 과대표집 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그림-24] 시간제(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표-21> 시간제(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천 명)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최저임금 미만 단시간 노동자	133	149	16	804	927	123
최저임금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30	42	12	225	293	68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3)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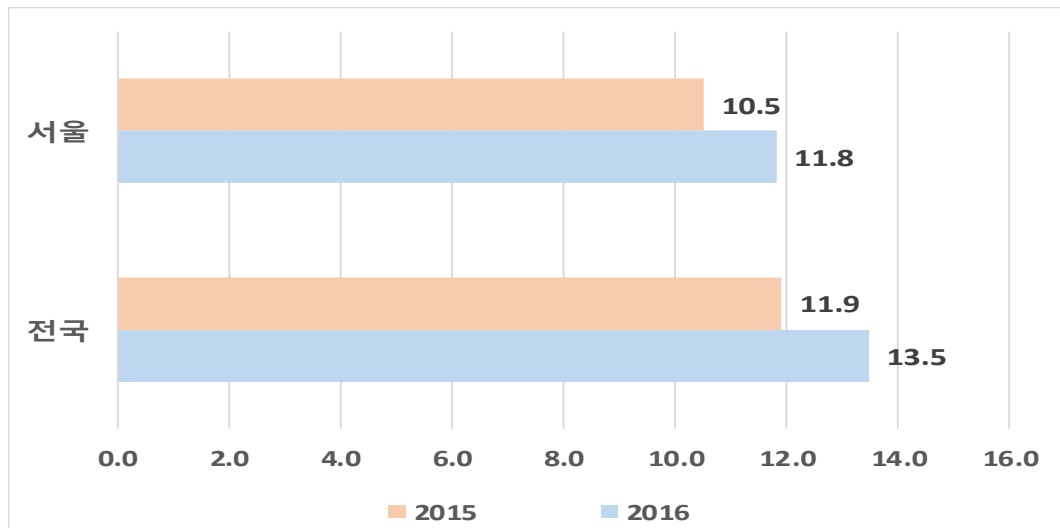
□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10.5%→11.8%로 1.3%p ↑

-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 10.5%(42만 2천 명)에서 11.8%(47만 7천 명)로 1.3%p(5만 5천 명) 상승 (전국 13.5%).
- 중고령, 여성, 고졸에서 주요 증가
- 40대는 14.5%(6만 1천 명)에서 15.1%(7만 2천 명)로 0.6%p 상승
- 50대는 21.6%(9만 1천 명)에서 22.2%(10만 6천 명)로 0.7%p 상승
- 60대 이상 31.3%(13만 2천 명)에서 32.3%(15만 4천 명)로 1.0%(2만 2천 명) 상승
- 여성 62.1%(26만 2천 명)에서 63.5%(30만 3천 명)로 1.4%(4만 1천 명) 상승
- 고졸 48.8%(20만 6천 명)에서 51.4%(24만 5천 명)로 2.5%(3만 9천 명) 상승

24)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월평균 급여와 근로시간을 고려했을 때, 시간당 임금이 해당연도의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그림-25]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

(%)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표-22>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변동

(천 명, %)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인원		422	477	55	2,320	2,654	334
연령	15~29	105 (24.9)	108 (22.6)	3 (-2.2)	522 (22.5)	589 (22.2)	67 (-0.3)
	30대	33 (7.8)	37 (7.8)	4 (-0.1)	218 (9.4)	247 (9.3)	29 (-0.1)
	40대	61 (14.5)	72 (15.1)	11 (0.6)	364 (15.7)	421 (15.9)	57 (0.2)
	50대	91 (21.6)	106 (22.2)	15 (0.7)	483 (20.8)	553 (20.8)	70 (0.0)
	60대 이상	132 (31.3)	154 (32.3)	22 (1.0)	733 (31.6)	844 (31.8)	111 (0.2)
성별	남	161 (38.2)	175 (36.7)	14 (-1.5)	796 (34.3)	900 (33.9)	104 (-0.4)
	여	262 (62.1)	303 (63.5)	41 (1.4)	1,524 (65.7)	1,754 (66.1)	230 (0.4)
학력	중졸이하	144 (34.1)	156 (32.7)	12 (-1.4)	878 (37.8)	962 (36.2)	84 (-1.6)
	고졸	206 (48.8)	245 (51.4)	39 (2.5)	1,085 (46.8)	1,267 (47.7)	182 (1.0)
	전문대졸이상	73 (17.3)	76 (15.9)	3 (-1.4)	357 (15.4)	425 (16.0)	68 (0.6)
거주지역 &사업체 지역	둘 다 서울	400 (94.8)	448 (93.9)	48 (-0.9)	-		
	서울 거주 &비서울 사업체	22 (5.2)	30 (6.3)	8 (1.1)			
	비서울 거주 &서울 사업체	63	67	4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 최저임금 시간당 미달액 5억 1백만 원→5억 8천 4백만 원으로 8천 3백만 원 ↑

- 최저임금 미달 금액 총합은 시간당 5억 1백만 원에서 5억 8천 4백만 원으로 8천 3백만 원 증가
- 1인당 최저임금 미달 금액은 시간당 1,187원에서 1,223원으로 36원 증가

〈표-23〉 최저임금 미달액 규모

(백만 원, 원)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시간당평균 최저임금 미달총액	501	584	83	2,751	3,205	454
시간당평균 1인 최저임금 미달액	1,187	1,223	36	1,186	1,208	22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 음식숙박업과 보건사회복지업에서 각각 1만 1천 명, 1만 3천 명 증가

- 음식숙박업 8만 9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1만 1천 명 증가
- 보건사회복지업 2만 5천 명에서 3만 8천 명으로 1만 3천 명 증가
- 도소매업 7만 6천 명에서 7만 9천 명으로 3천 명 증가
- 건설업 1만 2천 명에서 1만 4천 명으로 2천 명 증가
- 공공행정 1만 5천 명으로 동일

〈표-24〉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업종

(천 명)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건설업	12	14	2	67	79	12
도소매업	76	79	3	351	395	44
음식숙박업	89	100	11	433	506	73
공공행정	15	15	-	136	159	23
보건사회복지	25	38	13	242	299	57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 사무 및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서 각각 1만 5천 명, 3만 2천 명 증가

- 사무 및 서비스직 10만 3천 명에서 11만 8천 명으로 1만 5천 명 증가
- 단순노무직 17만 5천 명에서 20만 7천 명으로 3만 2천 명 증가
- 관리전문직 2만 3천 명에서 2만 8천 명으로 5천 명 증가

- 기능조작직 5만 1천 명에서 5만 4천 명으로 3천 명 증가
- 판매직 6만 9천 명에서 7만 1천 명으로 2천 명 증가

〈표-25〉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직종

	서울			전국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관리전문직	23	28	5	132	154	22
사무 및 서비스직	103	118	15	582	689	107
판매직	69	71	2	297	343	46
기능조작직	51	54	3	242	277	35
단순노무직	175	207	32	1,061	1,186	125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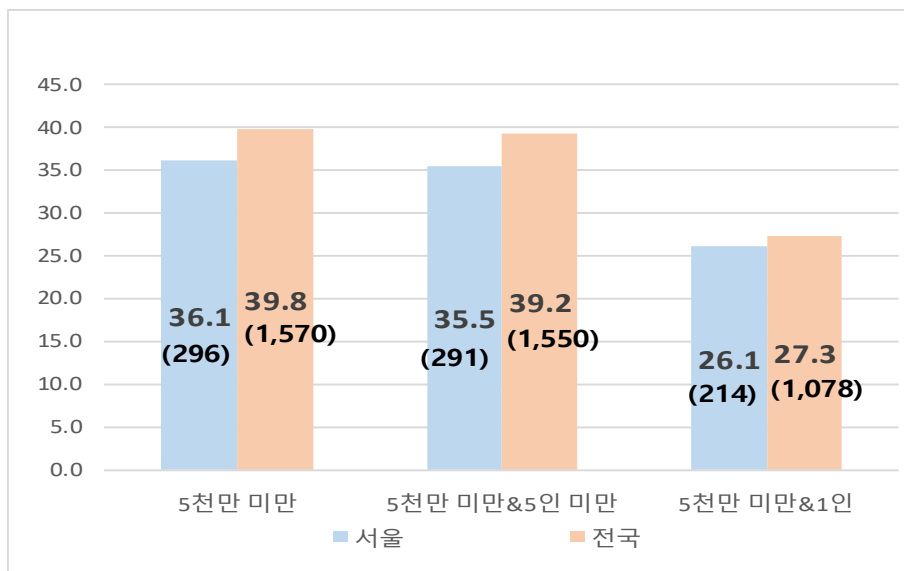
4) 영세자영업자²⁵⁾

□ 서울의 자영업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36.1%

- 전체 자영업자 중 연매출 5천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 36.1%(29만 6천 명) (전국 39.8%)
- 연매출 5천만 원 미만&5인 미만 자영업자 35.5%(29만 1천 명) (전국 39.2%)
- 연매출 5천만 원 미만&1인 미만 자영업자 26.1%(21만 4천 명) (전국 27.3%)

[그림-26] 영세자영업자 비율 (인원)

(%, 천 명)



자료 : 통계청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25)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과 종사자 규모를 고려하여 3가지로 정의됨. 기본적으로 연매출이 5,000만 원 미만인 사업체가 영세사업체로 정의되고, 영세자영업자는 이 사업체의 소유주를 뜻함. 연매출 5,000만 원은 간이과세대상자가 연매출 4,800만원인 점이 참고 되었으며, 데이터의 한계로 200만원의 격차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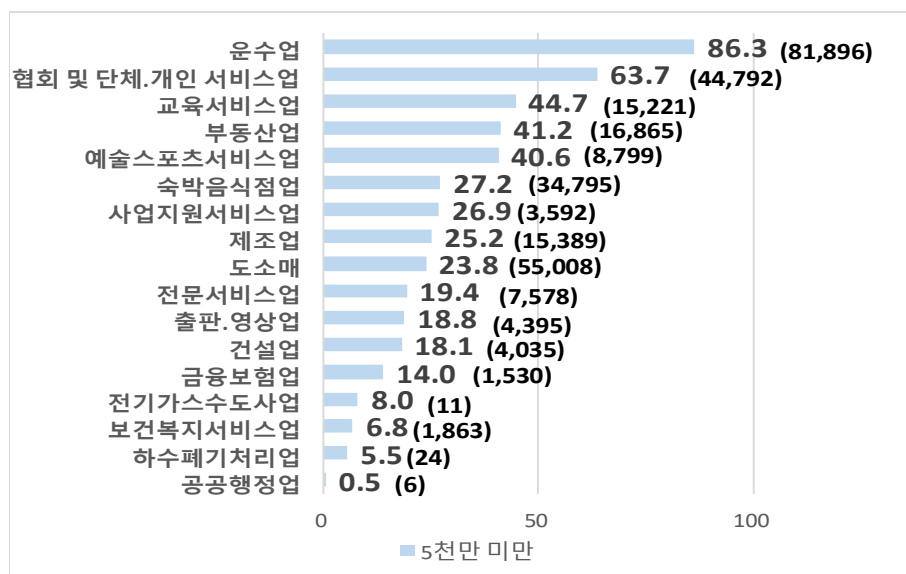
한편, 전국사업체조사에 연매출 항목이 포함된 것이 2016년부터이기 때문에, 2016년 한 해가 횡단 분석됨.

□ 운수업(86.3%), 협회 및 단체·개인서비스업(63.7%), 교육서비스업(44.7%), 부동산업(41.2%), 예술스포츠업(40.6%)에서 비율 높아

- 영세자영업자 비율은 운수업 86.3%(81,896명), 협회 및 단체·개인서비스업 63.7%(44,792명), 교육서비스업 44.7%(15,221명), 부동산업 41.2%(16,865명), 예술스포츠업 40.6%(8,799명) 순임.
-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영세자영업자의 인원수는 많은 편이었지만, 비율은 작았음.

[그림-27] 산업별 영세자영업자 비율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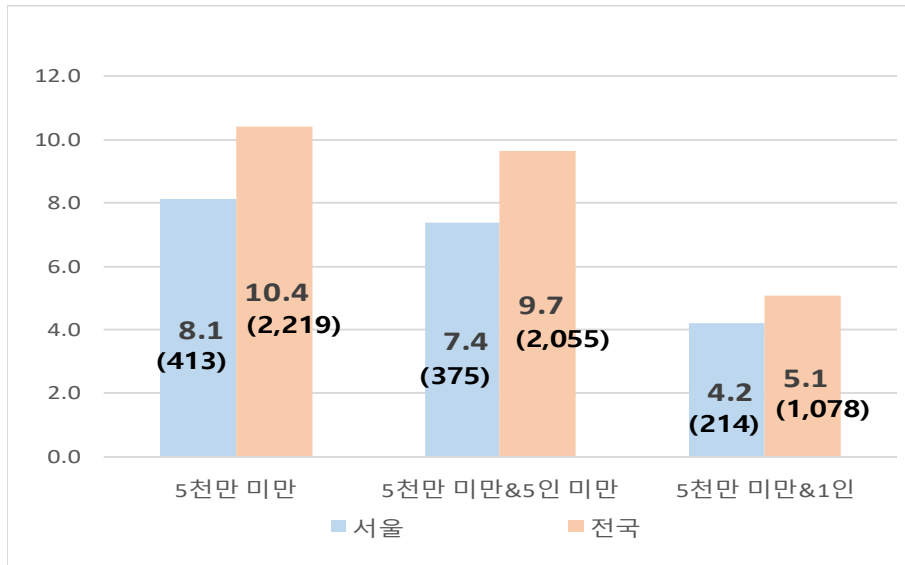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 서울 종사자 중 영세자영업체 종사자 비율은 8.1%

- 전체 종사자 중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사업체 소속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 중 8.1%(41만 3천 명) (전국 10.4%)
- 연매출 5천만 원 미만&5인 미만 사업체 소속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 중 7.4%(37만 5천 명) (전국 9.7%)
- 연매출 5천만 원 미만&1인 미만 사업체 소속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 중 4.2%(21만 4천 명) (전국 5.1%)

[그림-28] 영세사업체 종사자 비율 (인원)

(%, 천 명)



자료 : 통계청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3. 임금체불 동향

□ 임금체불 노동자와 총액은 ↓, 위반 사업체수는 ↑

- 체불당한 노동자 63,960명에서 62,854명으로 1,106명 감소
- 임금체불 총액 3,179억에서 3,096억으로 83억 감소
- 위반 사업체 29,665개에서 30,333개로 668개 증가
- 서울의 임금체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체불당한 노동자와 위반 사업체를 함께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함.

<표-26> 임금체불 변동

	2015	2016	증감
사업체수(개)	29,665	30,333	668
노동자수(명)	63,960	62,854	-1,106
전체 임금체불금액(억 원)	3,179	3,096	-83
1인당 임금체불금액(천 원)	4,971	4,926	-45

자료 : 서울시 고용노동청 정보공개청구자료

□ 임금체불총액 30인 이상에서 ↓, 30인 미만에선 오히려 ↑

- 임금체불총액은 5인 미만이 800억에서 851억으로 51억 증가
- 5~29인은 1,280억에서 1,391억으로 111억 증가

- 30~99인은 500억에서 451억으로 49억 감소
- 100~299인은 281억에서 199억으로 81억 감소
- 300인 이상은 316억에서 202억으로 113억 감소
- 임금체불총액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30인 미만에선 오히려 증가
- 한편, 임금체불 총액은 5인 미만에서 많았지만, 1인당 임금체불액은 30인 이상에서 2배 더 컸음. 이는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오히려 임금체불의 질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함.

〈표-27〉 종사자규모별 임금체불액

	임금체불총액(백만 원)			1인당 임금체불액(천 원)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5인미만	80,092	85,103	5,011	3,295	3,380	85
5~29인	128,080	139,161	11,081	5,391	5,640	249
30~99인	50,057	45,147	-4,910	6,509	6,687	178
100~299인	28,109	19,980	-8,129	8,839	6,406	-2,433
300인 이상	31,600	20,237	-11,363	6,286	6,459	173

자료 : 서울시 고용노동청 정보공개청구자료

□ 임금체불액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233억과 28억 ↓, 서비스업에선 오히려 ↑

- 임금체불액은 건설업이 768억에서 535억으로 233억 감소
- 제조업은 325억에서 297억으로 28억 감소
- 도소매음식숙박업은 618억에서 679억으로 61억 증가
- 운수창고통신업은 503억에서 630억으로 127억 증가
- 사업서비스 및 금융부동산업은 556억에서 611억으로 55억 증가
- 2016년 임금체불총액 감소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임금체불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임. 한편, 서비스업종은 임금체불액 오히려 증가
- 한편, 1인당 임금체불액을 보면, 다른 업종보다 운수창고통신업의 임금체불의 질이 가장 나쁨 (826만 원).

〈표-28〉 산업별 임금체불액

	임금체불총액(백만 원)			1인당 임금체불액(천 원)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제조업	32,573	29,781	-2,792	6,222	5,910	-312
건설업	76,883	53,548	-23,335	6,747	4,703	-2,044
도소매음식숙박	61,814	67,987	6,173	3,421	3,567	146
운수창고통신	50,326	63,007	12,681	7,206	8,263	1,057
사업서비스 & 금융부동산	55,600	61,151	5,551	4,301	5,320	1,019

자료 : 서울시 고용노동청 정보공개청구자료